

하 은 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Henri Duparc 가곡의 반주 연구

- 「Chanson Triste」 「L'Invitation au  
Voyage」 「Extase」 그리고 「Le Manoir  
de Rosemonde」 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 주 학 과

김 경 희

# Henri Duparc 가곡의 반주 연구

- 「Chanson Triste」 「L'Invitation au Voyage」 「Extase」 그리고 「Le Manoir de Rosemonde」 를 중심으로 -

하 은 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 주 학 과

김 경 희

# 인 준 서

김경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이 은 영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하 은 아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신 영 주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뒤파르크(Henri Duparc : 1848~1933)는 프랑스 음악의 부활을 주도한 국립 음악협회 건설의 주역으로 프랑스 예술 가곡 발전에 중심이 되었고, 19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룬 멜로디를 Fauré, Debussy와 더불어 발전시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프랑스 작곡가로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주목된다. Duparc의 가곡은 프랑스어 특유의 아름다운 어감을 음악적으로 잘 조화시켰으며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는 보다 자유로움을 추구하였다. 피아노성부에서는 성악 성부와 동등한 입장으로 이중주를 이루며 일부 곡에서 관현악 반주로 쓰여 지거나 편곡되어 다양한 색채를 찾고자 하였고 반주의 영역도 확장하였다.

그는 500여 곡에 달하는 가곡을 작곡하였음에도 지나친 자기비판의 성격과 신경 쇠약 등으로 스스로 작품을 파기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현존하는 그의 가곡은 16곡이 전부이다. 16곡간의 내용과 형식상의 연관성은 없지만 대체로 음울하고 어두우며 무거운 분위기로 이루어지고, 이는 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Duparc의 독창가곡 16곡 중 자주 연주되고 그의 음악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곡, 「Chanson Triste」, 「L'Invitation au Voyage」, 「Extase」, 그리고 「Le Manoir de Rosemonde」 이상 4곡을 선별하여 연구하고 반주를 분석 하고자 한다. 위 4곡은 후기 고답파 시인 Jean Lahor(1840~1909), Robert de Bonnières(1850~1905)와 상징주의 시인의 대표적인 작가 Charles Baudelaire(1821~1867)의 시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시인들의 시를 음악과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각각 다른 시의 분위기에 따라 Duparc 가곡만의 특징을 가지고 음악적으로 잘 승화시켰다.

먼저 Duparc의 생애와 음악, 그의 가곡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작품과 작시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악곡분석에 있어서는 시의 해석, 형식과 악곡의 스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반주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연주가들에게  
음악적인 표현이 보다 정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Duparc의 생애와 작품	4
2. Duparc의 가곡	8
1) 사회·문화적인 배경	8
2) Duparc 가곡의 작시자	12
3) Duparc 가곡의 특징과 목록	21
3. 작품 분석	28
1) Chanson Triste	28
2) L'Invitation au Voyage	42
3) Extase	60
4) Le Manoir de Rosemonde	70
III. 결론	85

## 참고문헌

## ABSTRACT

## 악 보 목 차

악보 1) Chanson Triste 제 1마디 .....	31
악보 2) Chanson Triste 제 2~5마디 .....	32
악보 3) Chanson Triste 제 6~7마디 .....	33
악보 4) Chanson Triste 제 8~9마디 .....	34
악보 5) Chanson Triste 제 10~13마디 .....	35
악보 6) Chanson Triste 제 14~18마디 .....	36
악보 7) Chanson Triste 제 19~25마디 .....	38
악보 8) Chanson Triste 제 28~31마디 .....	39
악보 9) Chanson Triste 제 33~37마디 .....	40
악보 10) L'Invitation au Voyage 제 1~9마디 .....	47
악보 11) L'Invitation au Voyage 제 18~23마디 .....	48
악보 12) L'Invitation au Voyage 제 29~31마디 .....	49
악보 13) L'Invitation au Voyage 제 32~39마디 .....	50
악보 14) L'Invitation au Voyage 제 50~57마디 .....	52
악보 15) L'Invitation au Voyage 제 58~65마디 .....	54
악보 16) L'Invitation au Voyage 제 69~72마디 .....	55
악보 17) L'Invitation au Voyage 제 75~82마디 .....	57
악보 18) L'Invitation au Voyage 제 83~88마디 .....	58
악보 19) Extase 제 1~9마디 .....	62
악보 20) Extase 제 10~17마디 .....	64
악보 21) Extase 제 18~25마디 .....	65

악보 22) Extase 제 26~33마디 .....	66
악보 23) Extase 제 34~41마디 .....	67
악보 24) Extase 제 42~48마디 .....	68
악보 25) Le Manoir de Rosemonde 제 1~3마디 .....	73
악보 26) Le Manoir de Rosemonde 제 4~9마디 .....	74
악보 27) Le Manoir de Rosemonde 제 10~17마디 .....	75
악보 28) Le Manoir de Rosemonde 제 18~20마디 .....	77
악보 29) Le Manoir de Rosemonde 제 21~29마디 .....	78
악보 30) Le Manoir de Rosemonde 제 30~33마디 .....	79
악보 31) Le Manoir de Rosemonde 제 34~36마디 .....	80
악보 32) Le Manoir de Rosemonde 제 37~41마디 .....	81
악보 33) Le Manoir de Rosemonde 제 42~46마디 .....	82
악보 34) Le Manoir de Rosemonde 제 47~52마디 .....	83
악보 35) Le Manoir de Rosemonde 제 53~54마디 .....	84

## 표 목 차

표 1) 작품 목록 .....	7
표 2) 성악 작품 목록 .....	23
표 3) Chanson Triste(슬픈 노래)의 악곡 분석 .....	29
표 4) L'Invitation au Voyage(여행으로의 초대)의 악곡 분석 .....	45
표 5) Extase(황홀)의 악곡 분석 .....	61
표 6) Le Manoir de Rosemonde(로즈몽드의 정원)의 악곡 분석 .....	71

## I. 서론

프랑스 예술가곡 (Mélodie)은 시(melos)와 음악(ôdé)의 뜻을 가진 두 그리스 낱말을 어원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Mélodie가 나오게 된 동기는 첫째, Romance가 쇠퇴하면서 이를 대신할 만한 성악곡이 요구 되었고, 둘째 독일의 Lied(슈베르트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에 의해 프랑스에 소개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셋째 낭만주의 새로운 시문학의 영향이 작곡가에게 새로운 영감과 작곡양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Mélodie는 Berlioz의 「Neuf Mélodies Irlandaises (아일랜드의 9개의 멜로디)」를 필두로 처음 사용 되어 지고 그 말을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독일의 Lied와 비견될 만한 예술가곡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후에 C. Gounod(1818~1893)를 통하여 Mélodie가 유행되어졌고, G. Fauré(1845~1924), A. Debussy(1862~1918), H. Duparc을 통하여 계승되며 19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

뒤파르크는 시가 주는 언어적 섬세한 뉘앙스를 음악과 결합시켜 프랑스 예술 가곡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고, 자기만의 음악 어법으로 특징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작곡가로 평가된다. Frankist<sup>1)</sup>의 일원으로 활동한 그는, 파리 음악계의 중심에서 활동하였으나 37세 되던 해에 정신병으로 스위스에 간 후로는 일체의 창작활동을 하지 못했다. 생애 동안 독주곡이나 협주곡과 같은 기악작품은 거의 작곡하지 않고 가곡작곡에 주력하여 무려 500여 곡을 작곡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엄격한 자기비판의 결과로 소량의 곡(독창가곡 16곡, 이중창곡 La Fuite (1872), 모테트 Benedicat yobis Dominus(1882), 교향시 Lenor(1875)만 남기고 있다. Duparc의 가곡은 기교적인 구성과 폭넓지만 유연한 선율들, 풍부한 화성 구조, 오케스트라 같은 짜임새의 조밀하면서 폭넓은 피아노 반주부를 가지고 있으며 16곡의 독창곡들은 각기 고유한

1) 프랑키스트(Frankist): 프랑크의 제자들이 만든 조직으로 댁디·쇼송·볼드·르뢰·피에르네·비도르·뒤파르크·샤뤼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고 파리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하였다.

성격들을 가지면서, 그 성격별로 묶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sup>2)</sup> 소야곡(저녁음악)인 「Sérénade」와 「Sérénade florentine」와 서정성의 분위기를 가진 「Chanson Triste」와 「Extase」, 「Phidylé」가 있으며 우수에 젖은 음울한 정서로 표현되는 「Soupir」, 「Elégie」, 「Lamento」와 「Testament」가 있다. 그리고 극적인 요소가 많은 「Le Galop」과 「Le Manoir de Rosemonde」가 있고 동경, 향수의 분위기로 「Romance de Mignon」과 「L'invitation au Voyage」, 「La vie Antérieure」으로 분류된다. 또한 시기적으로 분류하자면 1868년, 1869년도에 작곡된 초기의 다섯 개의 멜로디로 op.2 no.1 탄식(Soupir), no.2 세레나데(Serenade), no.3 미농의 로망스(Romance de Mignon), no.4 슬픈노래(Chanson Triste), 그리고 no.5 갈롭(Le Galop)와 작곡년도 분류 상 중기에 작곡되어진 1870~1874년도의 작품 다섯 곡으로는 전쟁이 있는 곳으로(Au pays où se fait la guerre), 여행에의 권유(L'Invitation au Voyage), 파도와 종(La Vague et la Cloche), 비가(Elegie), 황홀(Extase), 1879~1884년도에 쓰여진 후기의 작품은 로즈몽드의 정원(Le Manoir de Rosemonde), 피렌체의 세레나데(Sérénade Florentine), 피디레(Phidylé), 애가(Lamento), 유언(Testament), 또한 전생(La vie Antérieure)들로 구분되어진다. 이 중 초기의 다섯 개의 멜로디가 그의 작품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일종의 표본이 되고 있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음악가들에 의해 활발히 연주되고 그의 음악적인 견해와 특징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4곡을 선정하였다. 서정적인 성격의 초기 5개 가곡 중 하나인 「Chanson Triste」와 동경과 향수의 분위기로 상징주의 시인의 대표자인 Charles Baudelaire(1821~1867)의 시를 소재로 한 「L'invitation au Voyage」, 그리고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반주부가 인상적이고 시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결합함에 있어서 중의적(衆意的)으로 표현한

2) 채은희, **Henri Duparc의 성악작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p.24

3) Frits Noske, **French Song from Berlioz to Duparc**, Dover Publidation, Inc. New York, 1970, p.272

「Extase」와 극적인 요소로 두 부분의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관현악 반주로 편곡된 「Le Manoir de Rosemonde」 이상 4곡을 중심으로 시가 주는 언어적 섬세한 뉘앙스를 어떻게 음악과 결합시켰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시인의 시(고답파, 상징주의 시인)를 소재로 하여 곡을 쓴 Duparc 가곡의 작시자와 음악적인 특징들을 스타일의 구성 요소대로 찾아보고 고찰한다. 또한 반주부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반주를 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하여 깊이 있는 이해와 표현을 함으로써 Duparc 가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음악적인 연주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본 논문 악보는 「Duparc 12 songs for voice and piano(medium) - Sergius Kagen - International Music Company」와 「Duparc 13 songs voice and piano(high) - 유태열 - 태림출판사」 이다.

## II. 본 론

### 1. Duparc의 생애와 작품

#### Henri Duparc(1848~1933)의 생애와 작품

Marie-Eugène-Henri Duparc는 1848년 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33년 2월 12일 몽 드 마르상(Mont-de-Marsan)에서 운명을 달리한 작곡가로서 음악적 재능은 어린 시절에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음악가를 지망한 것도 훨씬 뒷날의 일이었지만<sup>1)</sup> 파리 보지나르에 있는 예수회 학교(Jesuit College of Vaugirard)에 다닐 때 C. Frank(1822~1890)에게서 고전의 대가들, 특히 Gluck(1714~1787)의 작품을 접했고 1871년에서 1875년까지 피아노, 작곡, 이론을 배웠다. 이때 Frank의 가르침으로 음악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

Duparc의 가곡들은 풍부한 감성과 유연한 프레이즈를 만들어내며, 굴절하지 않는 노래의 악구 속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와 반주의 풍부한 울림이 특징적이다. 뒤파르크의 작곡양식은 그의 스승인 프랑크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서, 표현의 풍부성과 반음계주의의 영향을 들 수 있다.<sup>2)</sup>

C. Frank의 제자는 Arther Coquard (1846~1910)<sup>3)</sup>와 Albert Cahen(1846~1903)<sup>4)</sup>, Vincent d'Indy(1851~1931)<sup>5)</sup>등이 있으며 특히 V.d'Indy(1851~1931), E. Chausson(1855~1899)등과 어울렸다.

1) 오현명, **세계명곡해설전집**, 제6권(작곡가편), 서울: 東梧出版社, 1977, p.284

2) Denis Stevens, **A history of song**, W. W. Norton&Company: New York:London, 1970, p.210

3) Arther Coquard (1846~1910): 프랑스의 평론가이며 작곡가로서 오페라를 남겼으며 “르 몽드”지의 음악 평론을 담당하였다.

4) Albert Cahen(1846~1903): 프랑스의 작곡가로서 Opera와 가곡을 남겼다.

5) Vincent d'Indy(1851~1931):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육가로 국민음악협회의 회장과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의 교장 겸 작곡 교수를 지냈다. 프랑크가 남긴 프랑스의 전통을 바탕으로 음악을 교육하고 작곡하였으며 프랑스의 보수주의적 한 유파를 이루었다.

뒤파르크는 Bach와 Beethoven, 동시대 음악가로는 Wilhelm Richard Wagner(1813~1883)의 음악에 심취해 있었는데<sup>6)</sup> 1868년에 작곡한 「Cinq Mélodies op.2 (5개의 멜로디)」를 쓰기 전에는 「Tristan und Isolde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Das Rheingold (라인의 황금)」 공연을 본 후 바그너의 악보를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이 5개의 곡을 작곡했다. 1869년에는 바그너의 뮌헨 공연에 대해 듣고는 바이마르에 있는 리스트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 곳에서 처음 바그너를 만나게 되고<sup>7)</sup>, 1870년에는 생상과 함께 바그너의 3막 악극인 Walkure (전쟁의 여신) 초연에 참석하기 위해 뮌헨으로 갔다. 그는 모든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Castillo Y Lanzas(1781~1878), Robert Benoît(1862~1941)의 문인들과 Fauré, Chausson, Saint Saens, Chabrier 동연대(同然代) 작곡가들과 친분을 나누면서 프랑키스트(Frankist)를 조직했고, 훗날 생상에 의해 설립되고 프랑크에 의해 계승된 국립음악협회<sup>8)</sup>에 참가 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세기 후반 프랑스 국민음악 수립에 큰 공헌을 한다.

뒤파르크는 19살에 그의 최초의 작품을 작곡하였는데, cello와 piano를 위한 Sonata(1867)곡이었으나 이 곡은 후일 직접 파기 하고 만다. 그 다음해인 1868년 「Feuilles volantes」의 6개 소품으로 이루어진 피아노곡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의 첫 작품으로 기록되며 Flaxland에서 출간된다. 후일 뒤파르크는 초기의 piano곡들을 모두 없애려 하였고 이때 같은 해에 작곡된 독창가곡 「Cinq Mélodies op.2」 중에서도 「Soupir(탄식)」, 「Chanson

6)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vol.5)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4 p.726

7) Ibid,p.726

8) 국립음악협회: 1871년에 건립된 모임으로 자국의 작곡가를 장려하고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음악적 소재를 프랑스 민속음악과 쿠프랭, 라모, 팔레스트리나 등 과거의 작품에서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교향곡과 실내음악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현격히 상승되었고, 이는 곧 음악의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되어 1894년 파리에 세워진 스킨라 칸토룸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20세기 초 다시한번 음악의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

triste(슬픈 노래)」만 남기길 원했고 「Sérénade(세레나데)」, 「Romance de Mignon(미뇽의 로망스)」, 「Le Galop(질주)」는 파기되길 원했다. 그러나 뒤파르크는 출판된 「Cinq Mélodies op.2」은 파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sup>9)</sup> 1875년에 뒤파르크는 Burger's의 시에 의한 교향시 「Lenore(1875)」를 작곡했으며, 이 곡은 그의 동료 생상에 의해 관현악으로 편곡된다.

이 후 1848년 La vie Antérieure(전생)까지 11개의 독창가곡과 이중창, 모테트 등 작곡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동시대 프랑스와 외국의 가장 중요한 음악작품들을 파리에 알리려 하기 위해서 1878년에는 뒤파르크가 「현대음악회장」을 창립하여 댕디와 함께 그 관리를 책임진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던 Duparc이었으나 신경성 질환을 얻어 1885년 37세 되던 해 파리를 떠났고 1896년까지 피레네 산맥의 끝에 있는 모낭(Monein)에서 살았다. 1897년에서 1906년에는 파리에서 머물렀으나, 다시 1906년 스위스의 베베이(Vevey)로 거처를 옮겨 1913년까지 살았다. 1916년 뒤파르크는 눈이 완전히 멀게 되었으며, 1933년 홀로 고뇌의 투병생활 중 세상을 떠나게 된다. 1885년 파리를 떠난 후 1933년 85세로 죽을 때까지 단 한 곡도 쓰지 않았고 일체의 음악적 활동도, 창작활동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뒤파르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없애버리려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는 불행하게도 지나치게 강하고 과장된 그의 비판적인 성격 때문이었고, 그 결과 총 500여 곡에 달하는 곡을 스스로 파기시키는 일을 조장했다. 파리에서 활발히 활동했을 당시 작곡하여 호평을 얻었던 작품 「첼로 소나타(1867)」, 관현악곡 「밤의 시(1874)」, 「렌틀러(1974)」 등 가곡 이외의 작품도 스스로 파기해 버렸다. 그래서 그의 작품 가운데는 문헌에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

9) Frits Noske, **French Song from Berlioz to Duparc**, Dover Publication, Inc. New York, 1970, p.272

예를 들면, 가곡 「Recuillment」와 오페라 「Roussalka」가 있으며 특히 오페라는 1막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작곡했음에도 결국 그것을 폐기시킨다.<sup>10)</sup>

따라서 현재는 17곡의 가곡(이 중 한곡은 2중 합창곡: 테너와 소프라노)과 교향시 「Lenore(1875)」 등 소량의 작품만 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그의 작품들 중 독창가곡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 1 > 작품 목록<sup>11)</sup>

Other Vocal	Orchestral Works	Other Instrumental works
Benedict vobis Dominus Motet, 1882	Suite de Valse, 1874	Sonate, 1867
	Poème nocturne	6 rêveries, 1864(?5)
	Lénore Symphonic poem, 1875	Feuilles volantes pf. op.1, 1867-69
La fuite Duet(sop. & Ten.), 1871	Panse Lente, 1892(?)	Beaulieu pf, 1869
	Prelude and Fugue Chorale, org.by J.S.Bach	2 Prelude and Fugues org.by J.S.Bach, 1903
		6 org. work by C. Frank, 1908

10) 홍은주, *뒤파르크의 12가곡 반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2004, p.4

11)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vol.5),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4 p.727

## 2. Duparc 가곡

### 1) 사회· 문화적인 배경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식에 이르는 동안, 정치적, 경제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혁명의 모토인 자유·평등·박애가 프랑스 사회의 전 계층으로 파급되었고, 혁명과 전쟁을 통해 민족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냈다. 한편, 새로운 기술 혁신은 사회 경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수공업적으로 생산하던 것으로부터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의 도시 경제로 바뀌었다.<sup>12)</sup> 문화적으로는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예술이 많았는데 특히 음악에 있어서는 솔직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Romance<sup>13)</sup>가 발전한다. 1830년부터 1848년 2월 혁명이 발발하던 때까지는 루이 필립(Louis-Philippe Duc d'Orléans; 1773~1850)에 의한 입헌 군주제의 왕정이 유지되면서 잠시였지만 정치적으로 평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었다.<sup>14)</sup> 그러나 부르주아를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공화주의자와 노동자들의 불만이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이후 1848년 2월 혁명으로 분출되어 7월 왕정이 무너지고 제 2공화정이 선포된다. 그리하여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3세: Napoléon III; 1852~1870)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매우 전제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철회했다. 하지만 모순되게 이 시기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예술 발전의 큰 밑바탕을 이룬다. 특히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제 2공화정 동안 시행된 도시 계획을 통해 새롭게 재건된다. 많은 수의 인구가 파리로 몰려왔으며

12) Grout and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下) 서양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26

13) Romance : 17세기 중엽에 나타나 18세기 초 수 십 년간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고전적 가곡(이탈리아의 영향)-성악과 반주 사이의 상호 작용은 아예 없거나 적으며 혁명과 제국 시대 동안 절정에 이른다. 감상적인 성역의 사랑, 솔직하고 개인적인 고백 등의 폭넓은 영역의 정서를 가사의 소재로 삼는다. 17세기 중엽에 나타나 18세기 초 수 십 년간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고전적 가곡이다.

14) 윤정연, **프랑스 <국립음악협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p.4

특히 1900년까지의 네 차례의 파리 만국 박람회<sup>15)</sup>는 급격한 문화적인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나폴레옹 3세)는 무리한 영토 확장 정책 때문에 국민들에게 민심을 잃고 일관적이지 못한 외교 전략과 1861년의 멕시코 원정의 실패는 몰락을 앞당겼다.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815~1898)는 프랑스의 이런 정치적 불안 상태를 빌미로 1870년 전쟁을 선포했고 승리한다. 이 시기 프랑스 사회는 문화적 변화에 절충주의라는 방법으로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공존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1875년 형식만 공화제인 제 3공화정이 막마옹(Patrice Macmahon, 1808~1882)에 의해 선포된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1889년에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들의 대혁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해 파리에서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어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게 되었다. 이 박람회에서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원시적인 예술과 음악이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소개되면서, 이국적이고 민속적인 새로운 예술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19세기 후반 동안 세 차례의 만국박람회를 통해 상업 발전뿐 아니라 각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sup>16)</sup>

프랑스 음악은 1871년 프랑스-프러시아 전쟁 말엽 국립음악협회가 건설된 해로부터 부활이 시작된다. 이 협회는 자국 작곡가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의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sup>17)</sup> 이는 민족주의 운동

15) 파리 만국 박람회 : 유럽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보불전쟁: 프로이센의 지도하에 통일 독일을 이룩하려는 비스마르크의 정책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나폴레옹 3세의 정책이 충돌해 일어난 전쟁)이 끝난 1871년부터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까지 전쟁이 없었는데 이때 낡은 사상을 떨쳐버리려는 강렬한 욕구와 새로운 세기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만국 박람회'가 열렸다. 이는 또한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이기도 했다. 배당된 부지에 각국 전통의 건축물을 짓고 그 안에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6) Ibid, p.7

17) Donald Jay Grout & Y.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上) 서양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777

의 시작이었고 그때 정부와 파리의 엘리트들은 전쟁의 패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활발한 프랑스 문화 창출에 주력했다. 이러한 흐름은 음악 학교의 정책에도 반영되었고, 1894년 뱅상 댕디 등에 의해 설립된 스콜라 칸토룸은 보수 정치와 결합하여 음악에 광범위한 역사 연구를 도입한다.<sup>18)</sup> 콘서트 활동의 증가, 음악 학교의 급증, 과거 전통의 부활, 새로운 음악 장르 등 활발한 음악적 환경으로 프랑스는 음악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러한 부흥과 함께 멜로디가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한 형태로 다른 대중가곡이나 민요 등과 구별하여 전승된다.

“멜로디”라는 명칭은 당시 프랑스에서 널리 확산된 토마스 무어의 시 「Irish Mélodies (아일랜드의 멜로디)」에서 차용된 것이다.<sup>19)</sup>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자유로운 유편형식으로 작곡되었으며, 1835년 이후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많은 판본이 거듭된 슈베르트 리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프랑스 멜로디의 역사는 베를리오즈부터 뵘에게 이르기까지 약 130년간 지속 되는데, 멜로디에서 특히 성공을 거둔 작곡가는 샤를르 구노로 총 4권의 가곡집을 작곡했고 동시대의 독일 리트에 비해 매우 감미롭고 유려한 선율이 특징적이다. 구노의 가곡은 비제, 마스네, 들리브의 가곡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이들은 프랑스 오페라에서 애용되었던 이국적 색채를 가곡에서 사용 한다<sup>20)</sup>.

1870년 이후의 프랑스 가곡 전통은 세자르 프랑크, 카미유 생상스, 에두아르 말로 등에 의해, 자유로운 형식과 함께 서정적인 성악선율, 낭창법의 사용 등으로 발전 되어갔고 앙리 뒤파르크, 가브리엘 포레에 멜로디 발전의 최절정을 맞이한다.

---

18) Grout and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下) 서양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186

19) 홍세원, *A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5, p.276

20) Ibid, p.277

프랑크가 자신의 “가장 재능있는 제자”로 칭송하던 뒤파르크는 1911년에 출간된 「성악성부와 피아노를 위한 13편의 멜로디」에서 그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였고 F. Noske<sup>21)</sup>는 “뒤파르크가 리트를 프랑스 음악의 가장 중요한 장르로 부각시켰다”라고 하였다. 포레는 뒤파르크와 함께 드뷔시 이전의 프랑스 멜로디를 독일 리트에 필적하는 장르로 격상시켰고 드뷔시(Achille Claude Debussy:1862~1918)를 지나 20세기 전반기의 뿔랑(Francis Poulenc:1899~1963)을 통해 프랑스 예술 가곡은 더욱 발전된다.

---

21) F.Noske: 네덜란드의 저명 음악학자

## 2) Duparc 가곡의 작시자(作詩者)

Duparc의 가곡에는 다양한 시인의 시를 소재로 하는데 그 중 상징주의 시인을 대표하는 C. Baudelaire를 제외하고는 모두 후기 고답파에 속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답파에 대해 고찰하고 Duparc 가곡의 작시자인 고답파의 시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상징주의의 문학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표적인 시인 보들레르에 관해 알아본다.

### (1) 고답파(Parnasse)

고답파(高踏派, parnassiens)는 프랑스 근대시의 유파로서 파르나스(Parnasse)란 명칭은 ‘시(詩), 시문집’이라는 뜻이며, 또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와 뮤즈가 살았다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산 이름 파르나소스(Parnasos)에서 유래되었다. 1866년에 출판업자인 르메르가 Leconte de Lisle(1818~1894), C. Mendés(1841~1909), S. Prudhomme(1839~1907), J.M.de Hérédia(1842~1905), F. Coppée(1842~1908) 등의 시를 모아 「Le parnasse contemporain (현대 고답시집)」이라는 사화집(詞華集)을 출판한 후부터 이들 시인을 고답파라고 부르게 된다.

고답파의 시풍은 감상적인 심정 토로를 일삼던 낭만파 시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으며 제 2제정시대의 풍조인 과학 존중의 실증정신을 반영하여 객관성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시작태도(詩作態度)를 보이고 있다

냉엄하고 이지적인 시각으로 沒個性(몰개성), 객관성, 無感動(무감동)을 신조로 하고, 反(반)낭만주의이자 고전주의에의 복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설에서 쓰이는 사실주의와 상통하고 Théophile Gautier, Théodore de Banville 등이 선구자이다. 객관성과 무감동성을 중시한 이 유파는 깊이가 있는 詩情(시정)이 부족하여 점차 쇠퇴하다가 반동으로 상징주의가 일어난다.

① Théophile Gautier(1811~1872)

테오필 고티에(Théophile Gautier: 1811~1872)는 프랑스의 시인·소설가·비평가이다. 그는 1811년 프랑스 타르브(Tarbes)에서 태어났으며, 파리에서 그림을 공부하다가 낭만주의 문인들의 영향으로 문학을 하게 되었다. 몇 명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조그만 세나클(cénacle)을 만들었는데 당시 Victor Hugo(1802~1885)의 기세에 끌려서 낭만주의 시인들, 화가들과 함께 전투적인 모임을 형성하여 낭만주의 운동을 전개했다.<sup>22)</sup> 1830년 Hugo의 연극 「에르나니」가 공연되었을 때 낭만주의자 측에 서서 고전주의와 적극적으로 투쟁을 했고 일약 명성을 드높인다. 그는 도발적인 행동과 붉은 색 조끼로 표상되는 바, 시에서는 낭만적이면서도 환상에 충만한 특색을 드러낸다.<sup>23)</sup> 그러나 1832년부터는 낭만주의 작가들의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 회의를 품고, 문학과 예술은 모두 자체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술을 위한 예술」 혹은 예술지상주의<sup>24)</sup>라고 부르는 신념을 가지고 작품을 쓰면서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 시킨다. 그는 이 사상을 확립 하면서 예속(隸屬)을 거부하고 순수하고 고립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결국 그것은 형식 숭배 관념이었다. 이는 예술가로 하여금 금은 세공사, 조각사, 장식가의 본분을 강조케 하고 동시대의 한 이상적 작가의 전형을 보여준다.<sup>25)</sup>

고티에는 소설과 시 뿐 아니라, 잡지와 신문에 미술, 연극, 무용 비평을 게재했으며, 문학 저널리즘에 헌신하여 예술, 문학에 관하여 2,000편 이상의 기사를 썼고 「Revue de Paris (르뷰 드 파리)」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한다.

22) 李仙玉, **Henri Duparc 歌曲에 관한 연구: 관현악 반주가 붙은 8개의 가곡을 중심으로**,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p.20

23) 이규식, **프랑스 시인들: 비욘에서 보들레르까지**, 대전: 한남대 출판부, 1994, p.260

24) 예술지상주의(l'art pour l'art):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으로 1830년대에 프랑스의 작가 테오필 고티에가 주장한 예술이론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도 하며, '인생을 위한 예술'과는 상대적인 입장에 선다.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예술 자체 및 미(美)에 있으며, 도덕적·사회적 또는 그밖의 모든 효용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과 무상성(無償性)을 강조하였다.

25) Ibid p.261

시집에는 고답파의 선구적 작품 「칠보와 나전(1852년)」이 있는데,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시의 한 전환기를 형성하였고 「예술을 위한 예술」 시학의 개화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로지 형태와 외면에 치중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었고 낭만주의가 흔히 보였던 안이성에 대한 경계는 필연적으로 기법과 글쓰기 노력을 강조하게 된다. 이 미학은 보다 적극적으로 낭만주의에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향후 이론적으로 확립되는 고답파에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고티에는 이 유파의 명실상부한 창시자가 되었다.<sup>26)</sup>

Duparc가곡에서 고티에의 시를 소재로 쓰인 작품은 「Au pays où se fait la guerre」 「Lamento」 이중창곡 「La fuite」이다.

## ② Leconte de Lisle(1818~1894)

1818년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생-폴에서 태어난 르콩트 드 릴(Leconte de Lisle:1818~1894)은 향후 출생지의 독특한 환경과 경관을 예술 및 작품 세계 구축의 밑그림으로 삼게 된다.

19세기 프랑스 문인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그도 역시 7월 혁명 이후 고양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화주의, 진보적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바 있었지만 민중과 행동을 함께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던 귀족이었을 따름이었다. 곧 예술 탐구로 선회하였고 34세에 첫 시집 「Poèmes antique (고대시집)」을 출간한다. 고대시집에서 그는 神話(신화)에 대한 시인의 성찰을 보여주었고 1862년 「Poèmes barbares (야만시집)」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을 한층 강렬하게 추구하였는데, 고대 희랍의 여러 양상을 부각시켰고 동시에 인도의 힌두문명이 갖는 의미를 상징적,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 1895년에 출간된 「Derniers poèmes (최후의 시집)」이 있다.<sup>27)</sup>

26) Ibid, p.264

27) 조규철, **프랑스시개론**, 서울: 신아사, 1995, p.256~364

그는 고답파의 기본적 특징인 몰개성과 냉담의 시학의 토대를 보여주었고 지금은 사라진 고대 민족의 종교적, 투쟁적 영감이 감정의 토로를 대체하였다. 테오필 고티에가 파르나스의 후견인이었다면, 르콩트 드 릴은 파르나스의 수장이었는데,<sup>28)</sup> 앞선 시대 낭만주의 시인들이 나타낸 감정 노출과 영감 토로에 반발하여 그는 오히려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열정적인 영혼을 억누르고 감수성을 의지의 힘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잘 다듬어진 대리석의 조형미를 통해 예술이 추구하는 미덕과 가능성의 한 예를 제시해 주었다.

Duparc가곡에서 릴의 시를 소재로 쓰인 작품은 「Phidylé」이다.

### ③ Paul Armand Silvestre(1837~1901)

그는 프랑스의 시인·소설가·가극 각본작가이자 미술 비평가이다. 한편 이공과 대학을 나와 재정 경제원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는 특히 익살스러운 콩트 전문가였는데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 외설스런 이야기, 스캔들과 부정한 남편들의 이야기와 같은 소재를 좋아하였다.

주요한 작품으로는, 「Rimes neuves et vieilles (새로운 운과 낡은 운-1866)」, 「Les Renaissances (르네상스-1870)」, 「la Gloire du souvenir (영광스런 추억-1872)」, 「Poésies, les Amours, la Vie, l'Amour (시, 사랑하는 사람들, 삶, 사랑-1875)」, 「la Chanson des heures (행복의 노래-1878)」, 「les Ailes d'or (금빛 날개-1880)」, 「le Pays des roses (장미나라-1882)」, 「la Chemin des étoiles (별들의 길1885)」 등이다.

Duparc가곡에서 실베스트르 시를 소재로 쓰인 작품은 「Testament」이다.

---

28) 바이양, 알랭 저, **프랑스시의 이해**, 서울: 동문선, 2000, p.70

④ Jean Lahor(1840~1909)

1840년 3월 9일 파리에 있는 Commeilles에서 태어난 그는 본명은 Henri Cazalis이고 하나의 가명으로는 Jean Caselli라고도 불리우는 프랑스 서정 시인이자, 철학자 문학자 소설가 및 의사였다. 그의 활동경향을 살펴보면 염세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우울함은 불교적인 시로서 표현했고 인간사상을 미야라는 환상에 기준을 두고 있다.<sup>29)</sup> 1870년대 불교에 심취하여 프랑스 문단에서 탈퇴하였으며 1909년 7월 1일 프랑스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Chants populaires de l'Italie(1865)」 「Vita tristis, Reveries fantastiques, Romances sans musique(1865)」 「Le Livre du néant(1872)」 「L'illusion(1875-1893)」 「Melancholia(1878)」 「Cantique des cantiques(1885)」 「Les Quatrains d'Al-Gazali(1896)」 이 있다.

Duparc 가곡에서 라오르의 시를 소재로 쓰인 작품은 「Chanson triste」 「Extase」 그리고 「Sérénade florentine」 이다.

⑤ Robert de Bonnières (1850~1905)

소설가이자 프랑스 학자인 그는 과거의 다양한 작가와 동시대의 작가에 관한 비평글을 다양한 신문에 실었고, 이들을 「Memoires d'Aujourd'hui 오늘날의 기억(1883~1885)」 이라는 제목으로 엮었다. 그의 소설에서는 파리의 고위층 유태인 사회에 대한 묘사로 이목을 끈 「Les Monach (모나크-1884)」 가 있고 인도 여행 후 출판한, 이국정서를 뛰어난 관찰을 통해 표현했던 「Le Baiser de Maina (마이나의 입맞춤-1886)」 등이 있다.

Duparc가곡에서 보니에르의 시를 소재로 쓰인 작품은 「Le Manoir de Rosemonde」 가 있다.

29) 李仙玉, Henri Duparc 歌曲에 關한 연구: 관현악 반주가 붙은 8개의 가곡을 중심으로, 서울: 성신 여자 대학원, 1997, p.23

⑥ Sully Prudhomme(1839~1907)

1839년 3월16일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1901년 제 1회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모두가 매우 서정적이고 고답파의 특징 중 하나인 무감동(無感動), 무각(無覺)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표현의 정확성이나 냉정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태도, 객관적 접근을 위한 운문에서 철학적 개념 표현 등은 고답파적 경향을 보여주었고 낭만주의의 과도한 감정 표현에 대한 반대적인 이념으로 시에 미학적 기준을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회복하고자 했던 고답파 운동의 지도자였다. 이런 경향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La Justice (정의-1878)」와 「Le Bonheur (행복-1888)」인데, 「행복」은 사랑과 지혜를 찾아 헤메는 파우스트의 탐험을 다루고 있다. 1881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으로 선출되고 1901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다.

Duparc가곡에서 프뤼돔의 시를 소재로 쓰인 작품은 「Soupir」, 「Le Galop」이다.

⑦ Francois Coppée(1842~1908)

프랑스의 시인이며 극작가·소설가이다.

육군성 상원 도서관-프랑스 극장 등에 근무할 때 고답파의 시인들과 친교를 맺게 된다. 고답파 시풍의 시집 「성유물함: Le Reliquarir(1866)」을 발표하였고 단막시극 「Le Passant(행인-1866)」에서는 문단에서 극작가로서 지위를 구축하게 된다.

서민의 생활과 감정을 소박하게 묘사하는 시와 극을 발표하였는데, 고풍스러우면서 감상적인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다.

Duparc가곡에서 코페의 시를 소재로 쓰인 작품은 유일하게 오케스트라 반주로 작곡되었던 작품 「La vague et la cloche」이다.

## (2) 상징주의(Symbolism)

일반적으로 상징파는 고답파의 객관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고, 분석에 의해서는 포착할 수 없는 주관적 정서(主觀的情緒)의 시적 정착(詩的定着)을 목표로 했다. 상징(Symbol)의 원 뜻은 ‘함께 내던지다’의 뜻인 그리스 말 “심발레인(Symballein)”에서 온 것인데 형이상학적 실재를 드러내어 그것에 참여하는 대상의 뜻이 있다. 상징주의는 학생과 시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서 배양되었는데, 이들은 선동·문학·깃곳은 장난·파티 등을 일삼으며 자신들을 물고문을 견디는 자들, 덩석부리들, 될 대로 되라는 자들<sup>30)</sup>이라고 불렸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상징파(象徵派)의 예술운동은 순수한 문학사적 의미에서 1890년에 전성기에 달했고 1902년에 중지부를 찍은, 대략 15년간에 걸친 시인들의 활동을 지칭한다. Baudelaire를 선구자로 하고 Verlaine, Mallarme등을 지도자로 한 이 예술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면생활과 생존의 신비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간접적인 표현, 즉 상징을 이용하여 형, 색, 향 등의 상호교감을 이루었고, 모호하고 몽롱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상을 표현하려 한다. 또한 심령에 반영된 이미지 이외의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주관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형의 대담한 개혁으로는 정형시 자체의 개혁, 자유시의 탄생, 산문을 시에 이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sup>31)</sup>

### Charles Baudelaire(1821~1867)

보들레르는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시인뿐만 아니라 문학예술 평론가 및 작가이다. 아버지는 철학자들의 제자이자 그림 애호가인 62세의 원로원(元老院)사무국 고관이었고, 어머니는 후처로 28세였는데, 아버지는 그가 6세 때 죽고 어머니는 39세의 육군 소령 자크 오피크와 재혼한다. 보들레르의

30) 바이양, 알랭 저, **프랑스 시의 이해**, 서울 : 동문선, 2000, p.75

31) 李仙玉, **Henri Duparc 歌曲에 關한 연구: 관현악 반주가 붙은 8개의 가곡을 중심으로**, 서울: 성신여대 대학원, 1997, p.25~26

표현대로 “유년시절부터 비롯된 고독 감정”은 짝트게 되었다.<sup>32)</sup>

리용에 이어 파리 루이르 그랑 학교에 다니던 시절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으나, 최고학년 때 품행관계로 퇴학처분을 당했다. 대학입학시험에는 단번에 합격하여 법과 대학에 등록은 했지만, 법률공부는 하지 않았고 그 후 문학 지망을 표명하였다. 이때부터 방탕한 유랑생활과 자유분방한 생활을 계속하였고 보다 못한 가족들은 그를 외항선에 태워 여행을 보낸다. 1841년 모리스 섬까지 여행을 한 경험은 그 결과 시에 이국 취향의 정서를 크게 드러낸 바 있다. 이윽고 성년이 되어 의붓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상속하여, 댄디즘의 이상을 추구하고 호화관 탐미 생활에 빠졌다. 2년 동안에 유산을 거의 다 낭비해 버리자 법정후견인이 딸린 금치산자(禁治産者)가 되어 줄곧 곤궁에 쪼들리면서 궁핍한 삶을 영위한다. 24세 때 「1845년의 살롱」을 출판하여 미술평론가로서 데뷔하였으며, 문예비평·시·단편소설 등을 잇달아 발표하여 문단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초기 미술 평론은 이미 깊이 있고 엄격한 비평 의식의 확립을 보여 준다. 1848년에 2월 혁명 때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일도 있었으나 쿠데타(1852년)이후 정치를 외면한다.<sup>33)</sup> 1857년, 청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 온 시를 정리하여 시집 「Les Fleurs du Mal (악의 꽃)」을 출판하였는데,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벌금과 시 6편의 삭제라는 판결을 받았다. 「Les Fleurs du Mal (악의 꽃)」의 발표는 낭만주의의 종말을 가져왔고 현대시의 기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상징주의의 초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sup>34)</sup> Hugo<sup>35)</sup>는 「Les Fleurs du Mal (악의 꽃)」에 대해 “새로운 전율의 창조”라고 극찬한다.<sup>36)</sup> 1860년에는 「인공낙원(人工樂園)」을 출판하고, 1861년에 「Les Fleurs du Mal (악의 꽃)」의 재

32) 이규식, **프랑스 시인들: 비용에서 보들레르까지**, 대전: 한남대 출판부, 1994, p. 320

33) 文德守 編, **세계문예대사전(上)**, 서울:成文閣, 1975, p.856

34) 송면, **개관 프랑스 문학**, 서울:연대출판부, 1981, p.133

35)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소설가 겸 극작가이다. 소설에는 불후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노트르담 드 파리」가 있다.

36) 文德守 編, **세계문예대사전(上)**, 서울:成文閣, 1975, p.857

판을 간행하였다. 이 무렵부터 문학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보들레르의 예술과 감성 구조를 간단히 특징짓는다면 복합성(complexe)란 단어인데 그의 작품 「Les Fleurs du Mal (악의 꽃)」의 복합성은 읽는 이들을 때로 어리둥절케 하는 난해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그는 프랑스 시인 중 최초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시를 쓴 시인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발레리<sup>38)</sup>는 “그보다 위대하고 재능이 풍부한 시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시인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언어 속의 언어”를 구성하면서 끊임없는 비평적 성찰의 힘으로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고양함으로써 향후 거의 모든 시인들이 나름대로의 시학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 바탕을 마련해준다.<sup>39)</sup> 보들레르의 서정시는 다음 세대인 베를렌·랭보·말라르메 등 상징파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죽은 지 10여년이 지나서야 그의 문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 보들레르는 명석한 분석력과 논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간심리의 심층을 탐구하고, 고도의 비평정신을 음악성이 넘치는 시에 결부한 점에 그의 위대성이 있다.

---

37) Ibid, p.323

38) 폴 발레리(Paul Valery,1871.10.30~1945.7.20):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이다.

39) Ibid, p.326

### 3) Duparc 가곡의 특징과 목록

#### (1) 음악적 특징

뒤파르크의 가곡은 낭만적인 정취를 표현력이 큰 선율과, 그 배경을 이루는 유려(流麗)한 반주에 의해 감각·관능·환상·열정·동경·애수를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여러 작곡가의 영향을 받았는데, 동시대에 활동하던 포레와는 비슷한 음악적 요소(tritone의 선율진행)들도 발견되고 화성의 색채적인 사용과 그 감각의 확실성, 신선함은 포레나 드뷔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바그너의 특성도 지니고 있는데, Soupir의 이명동음(enharmonic)전조에 의한 반음계적 흐름과 Elgie의 단 9도 진행, Extase의 반주 진행 등으로 확실하게 증명된다. 그의 스승인 Frank에게는 반음계주의와 표현의 풍부성을 계승하였고 Gounod에게는 분산화음과 미묘한 당김음 등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Liszt에게서는 감7도나 변화화음에 의한 조성 진행, 급진진행 등이 나타난다.

19세기 음악은 복잡한 화음, 비화성음의 자유로운 사용, 빈번한 조성의 변화, 반음계적 선율 진행, 전통적인 화성에서 벗어난 화성, 분명한 중지를 피하려고 조성의 윤곽을 흐리게 하는 작법이 성행했고 이미 악기 음색의 발전 등 상당한 음악적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음악은 위와 같은 흐름을 흡수하였고 아울러 그 자신에게만 속한 독창성으로 결합하면서 진취적이며 새로운 모습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Duparc는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 간결하면서도 다채롭게 보이는 반주 음형을 통하여 수준 높은 가곡을 이루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40) 국내 학술지 論文集- Duparc의 歌曲分析 : 伴奏의 音型別 類型을 中心으로, 咸泰相 p.234

Duparc 가곡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시를 강조하는 기법으로 성악성부에서 강박에서 리듬을 잘게 나누어 사용하였고, 쉼표의 잦은 출현으로 극적 효과를 높인다. 또한 강조될 필요가 없는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에 선율상 악센트를 부여했다.<sup>41)</sup>

둘째, 피아노의 역할이 단순 반주가 아닌 선율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독립적으로 시의 색채감을 표현하였고 반주역할을 중요시 했는데,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감당하게 할 만큼 신중했다.

셋째, 성악적인 과시벽(過時壁)을 혐오했는데, 대부분에서 그가 선호하는 “바이올린 같은 목소리, 악구들을 유연하게 흐르게 부를 수 있는 능력, 목소리의 톤의 타고난 강렬함을 보이는 소리”의 유형대로 곡을 작곡한다.<sup>42)</sup> 따라서 높은 음역의 음들을 많이 사용하고, 선율은 긴 호흡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며 폭이 넓게 움직인다. 또한 Recitative적인 선율선을 가지고 다양한 음역으로 도약하는 경우가 많고 클라이막스 뒤에 오는 갑작스런 하행이 특징적인데, 이런 방법은 Duparc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넷째, 변화화음, 변성화음을 자주 사용하고 시의 풍부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불협화음정인 증 4도 음정을 사용하며, 대담한 반음계적 진행, 전타음(appoggiatura), 당김음(syncopation)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생애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쓴(1868~1882) 소량의 작품들 속에서 뒤파르크 자신만의 표현 기법을 결합시킨 새롭고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었고 프랑스 예술 가곡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41) 李仙玉, **Henri Duparc 歌曲에 關한 연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p.13

42) Carol Kimball,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上)**,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p.90

(2) Duparc 가곡 목록

<표 2> Duparc의 가곡

구 분	작품 번호	곡명	작사자	조성	작곡 년도	비고
5 개의 가 곡 <b>Cinq Mélodies op.2</b>	op.2 no.1	Soupir(탄식)	S.Prudhomme	d	1869(?8)	
	2	Sérénade(세레나데)	G.Marc	G	1869(?8)	
	3	Romance de Mignon (미뇽의 로망스)	Goethe의 시 V. Wilder가 각색	E	1869(?8)	원시는 Kennst das Land
	4	Chanson triste (슬픈 노래)	H.Cazalis (J.Lahor)	E	1868	관현악 반주 편곡
	5	Le Galop(질주)	S.Prudhomme	g	1869(?8)	
가 곡		Au pays où se fait le guerre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T.Gautier	f	1869~ 70	관현악 반주편곡 원래제목 L'Absence
		L'Invitation au Voyage(여행으로의 초대)	C.Baudelaire	c	1870	관현악 반주 편곡
		La Vague et la Cloche(파도와 종)	F.Coppée	e	1871	관현악반주작곡. d'Indy가 피아노반주 편곡
		Élégie(비가)	T.moore	f	1874	
		Extase(황홀)	J.Lahor	D	1874(?8)	
		Le Manoir de Rosemonde (로즈몽드의 정원)	R.de Bonnières	d	1879 (?82)	관현악 반주 편곡
		Sérénade Florentine(피렌체의소야곡)	J.Lahor	F	1880 ~81	
		Phidylé(피딜레)	Leconte de Lisle	A	1882	관현악 반주 편곡
		Lamento(애가)	T.Gautier	d	1883(?5)	
		Testament(유언)	A.Silvestre	c	1883(?5)	관현악 반주 편곡
		La vie Antérieure(전생)	C.Baudelaire	E	1884	관현악반주로 작곡
이중창곡 소프라노 테너		La fuite(도주)	T.Gautier	G	1871	
모테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Benedicat vobis Dominus (베네디카트)			1882	

제 1곡 Phidylé(피딜레)는 태양빛으로 따뜻하고 꽃내음이 향긋한 초록의 교외에서의 장면을 표현한 풍경화를 감상하는 느낌으로 사랑하는 이의 곁에 누워, 한가로운 경치 속에서 쉬고 있는 한 젊은이를 표현하고 있다.<sup>43)</sup> 성악 파트와 피아노는 균형을 이루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작곡되었으며 긴 후주는 오케스트라를 연상시키는 큰 스케일과 다양한 색채로 평화로움을 표현해 준다.

제 2곡 L'Invitation au Voyage(여행으로의 초대)에서는 보들레르의 시에서 두 연만을 선택하였는데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한 낙원을 동경하는 내용의 시로 동경의 장소로 네덜란드를 묘사하고 있다. 시인이 그의 연인을 꽃으로 가득한 들과, 안개 낀 하늘, 평화로운 운하로의 환상의 여행에 초대 한다. 비전을 영상화 하여 황홀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sup>44)</sup> 피아노의 형태들은 곡 전체에서 분위기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피아노는 몽롱한 분위기로 은은하고 잔잔한 물결을 표현 하는 듯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이어진다.

제 3곡 Sérénade Florentine(피렌체의 소야곡)은 다른 곡들에 비해 짧고 간결한 작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세레나데로서 들뜬 마음을 피아노의 리듬을 통하여 조용하지만 두근두근 하는 느낌을 담아 표현한다. 성악가는 명확한 소리를 필요로 한다. 곡 전체는 *p*와 *pp*로 침착하고 기쁨이 가득한 평온함으로 불러야 한다.<sup>45)</sup>

제 4곡 Extase(황홀)은 표면적으로 서정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외설적이라고 할 만큼의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황홀한 느낌을 노래하고 있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에 내포된 내용

43) Carol Kimball,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上)**,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p.93

44) Pie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가사·딕션·연주를 위한 해설, 심선화 옮김, 서울: 청림출판사, 2001, p.111

45) Ibid p.98

을 이해하여 표현해야 한다.<sup>46)</sup> 이 곡은 의도적으로 바그너를 찬양하기 위해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스타일로 작곡했다. 피아노가 풍부하게 쓰인 전주, 간주, 후주들과 함께 성악은 여섯 행으로 이루어진 가사를 전개해 간다.

제 5곡 Le Manoir de Rosemonde(로즈몽드의 정원)의 시는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의 힘든 인생의 이미지를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꿈에 그리는 연인에게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죽으려고 멀리 갔던 일을 권태롭게 이야기 하고 있다. 뒤파르크의 가곡들 중 가장 강렬하게 극적인 곡으로 작곡되었는데 구성, 분위기, 절정의 순간들은 고전적인 멜로드라마를 연상시킨다. 성악 라인은 강하게 낭송조이고 지친 여행자가 그가 찾는 목적을 얻지 못한 채 마침내 여행의 끝으로 도달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서정적인 마무리와 균형을 이룬다.<sup>47)</sup>

제6곡 Lamento(애가)는 정적이며 움직임이 적은 곡으로 아주 느린 빠르기로, 성악가는 완벽한 legato로 모음을 가능한 한 길게 늘여서 불러야 한다. 이 곡은 고티에의 긴 원시 중 세 연만을 가져다가 쓰인 것으로 시의 부드러운 모음들은 슬픈 분위기를 보충해 주는 울림들을 만들어 낸다. 뒤파르크는 이 멜로디를 애처로운 네 개의 단화음 코드들의 진행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일체감 주는 동기로 화성적일 뿐만 아니라 선율적으로도 사용한다. 이 진행은 곡 전체에서 세 번 더 등장하고 더 빠른 부분에서 변형된 형태로 새로운 피아노 패턴들과 섞여 저서 발견된다.<sup>48)</sup>

성악파트는 말하는 것처럼 피아노를 따라 흘러가고 있어 이 곡의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는 피아노가 주도적으로 표현해준다.

46) 홍은주, **뒤파르크의 12가곡 반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2004, p.154

47) Pier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가사·딕션·연주를 위한 해설, 심선화 옮김, 서울: 청림출판사, 2001, p.99

48) Ibid p.93

제 7곡 Testament(유언)은 열정적이며 화려한 곡으로 확실한 가사 분절 (articulation)을 요구한다. 노래는 3/4박자로 진행되는 반면에 피아노는 9/8 박자로 진행하면서 노래와 피아노가 서로 다른 리듬체계로 진행한다.<sup>49)</sup>

따라서 불균형 속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관현악적인 피아노 파트가 특징적이다.

제 8곡 Chanson Triste(슬픈 노래)의 주제는 “희망”이다. 뒤파르크의 첫 번째 가곡으로 곡 전체에 잔잔하게 퍼지는 피아노의 아르페지오가 이 곡을 지배한다. 이 곡은 뒤파르크 양식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 성악 선율들은 딸림음을 기준으로 옮겨지고 악구의 길이는 길게 멈추지 않고 흐르는 아르페지오 반주 위에서 노래한다. 곡 전체를 흐르는 느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묘사하고, 제목은 슬픈 노래이지만 주제는 희망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제 9곡 Elégie(비가)는 절망적인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이 절망감이 지금은 사라져 없는 것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외침을 노래한 곡으로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고 아주 느리게 진행한다. 마지막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대한 시인의 신실함을 나타내도록 표현한다.

제 10곡 Soupir(한숨)에서는 피아노 파트가 꾸준히 같은 반주패턴을 반복하면서 느리고 움직임이 적게 한숨의 소리와 고통을 표현하고 동일한 리듬 형태가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첫 절은 단순하고 슬프게, 둘째 절은 좀 더 강렬하게 사랑하는 이를 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셋째 절은 성악파트의 긴 휴지부에서 피아니스트가 무겁게 끌지 않고 하향하는 반음계를 다소 빠르게 처리함으로 채워진다.<sup>50)</sup>

제 11곡 La vie Antérieure(전생)에서의 장엄한 시가 뒤파르크로 하여금 그의 마지막 가곡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으며, 아름답고 매혹적인

49) 홍은주, *뒤파르크의 12가곡 반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2004, p.155

50) Ibid p.103

「Chanson Triste」이후에 작곡가의 발전이 주목할 만하다.<sup>51)</sup>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평온함, 파도, 고통을 표현한다. 평온함은 한음씩 무게감 있게 깊은 음색으로 표현하고 파도는 처음 표현과 대조적으로 반주부가 굽이치는 파도의 방대한 움직임에 암시하며 고통스러운 비밀은 한음 한음을 깊이 눌러 음색을 표현해준다. 피아노의 종결부는 매우 유동적이며 유연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도록 표현할 수 있다.

제 12곡 La Vague et la Cloche(파도와 종)은 뒤파르크의 가곡 중 유일하게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으로 시인 꼬빠 자신이 끈 연속적인 두 개의 악몽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악몽은 폭풍 치는 밤과 종이 울리는 음악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주자에게는 좋은 테크닉과 성악가에게는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힘 있는 목소리를 요구한다.

뒤파르크의 12가곡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결과 중간 음역을 위해 쓰인 「Testament」와 저음의 「La vague et la cloche」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의 가곡들은 고성의 소리에 적합한데 이조할 때 가곡들의 폭넓은 음역으로 인한 광택이 낮은 조성에서는 희생되므로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한다.<sup>52)</sup>

그러나 넓은 음역의 성악선율의 사용과 무거운 가사 내용의 특징상 여성 성악가 보다는 남성 성악가들에 의해 더 많이 연주된다. 「La Vague et la Cloche」는 오케스트라를 위해 쓰였는데 후에 땡디가 피아노 반주로 편곡한다. 대다수의 곡(8곡)이 작곡가에 의해 훗날 오케스트라용으로 만들어진다. 그의 가곡은 모든 곡이 대체로 무겁고 음울한 색채를 띠고 있는데 가사 내용의 표면적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깊이감을 통찰력 있게 살펴봄으로써 음악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함을 필요로 한다.

51) Pie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가사·딕션·연주를 위한 해설, 심선화 옮김, 서울: 청림출판사, 2001, p.113

52) Ibid p.91

### 3. 작품 분석

#### 1) Chanson Triste (슬픈 노래, 1868)

##### (1) 시의 해석

Dans ton coeur dort un clair de lune,      당신의 마음속에는 달빛이 잠자고 있다.  
Un doux clair de lune d'été.                      부드러운 여름의 달빛이,  
Et pour fuir la vie importune                      힘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Je me noierai dans ta clarté.                      당신의 빛 속으로 나는 빠질 것이다.

J'oublierai les douleurs passées,              나는 지나간 슬픔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Mon amour, quand tu berceras                      나의 사랑이여!  
Mon triste coeur et mes pensées,              당신이 나의 슬픈 마음과 생각들을  
Dans le calme aimant de tes bras.              당신 팔 안에 평안 속으로 잠재울 때

Tu prendras ma tête malade                      당신은 상처 입은 내 머리를 치유하고  
Oh! quelquefois sur tes genoux,                      아! 때때로 당신의 무릎 위에서  
Et lui diras une ballade                              발라드를 읊어 줄 것이다.  
Qui semblera parler de nous.                      우리들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발라드를

Et dans tes yeux pleins de tristesses,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Dans tes yeux alors je boirai                      그대의 눈빛 속에서  
Tant de baisers et de tendresses                      수많은 입맞춤과 사랑을 마실 것이다.  
Que, peut-être je quérirai                      아마도 그러면 나의 아픔은 나을 것이다.

## (2) 악곡 분석과 반주 연구

Chanson Triste(슬픈 노래)는 뒤파르크가 1868년 20세에 작곡했으며, 소프라노 Léon Mac Swiney에게 헌정하였다. 이 곡은 라오르의 시에 부쳐진 곡으로 주제는 “희망”이다.<sup>53)</sup>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내용으로<sup>54)</sup> 시인의 슬픈 마음과 고민스런 현실에서 따뜻한 그대를 의지하면서 안식을 구하는 내용으로 서정적인 사랑의 노래이다.<sup>55)</sup> 약간의 감상적인 성격은 구노의 살롱음악에서 보였던 로망스를 보는 듯 하며,<sup>56)</sup> 연주할 때 감상벽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곡은 A-B-C 3부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Chanson Triste(슬픈 노래)의 악곡 분석

형식	전주	A	간주	B	간주	C	후주
마디	1	2-9	10-11	12-18	18-19	20-34	35-37
템포	Lent						
박자	12/8						
조성	E b	c-E b -F#		E b -D-g-c-E b			

53) Pie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 가사·딕션·연주를 위한 해설, 심선화 옮김, 서울: 청림출판사, 2001, p. 96

54) 홍은주, **뒤파르크의 12곡 가곡 반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2004, p.86

55) Stanley Sadie,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vol.5)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td, 1984 p.72

56) Carol Kimball,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上)**,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p.91

시의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4연 4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운은 f(여성운<sup>57</sup>)-m(남성운<sup>58</sup>)-f(여성운)-m(남성운) 형태의 같은 교차운<sup>59</sup>이 4번 반복되고, 시의 리듬은 각 행마다 8음절로 엄격하게 통일된 4행시이다.

이 곡은 분산화음(아르페지오)을 이용한 다양한 전조의 반주형을 가지고 있는데, 왼손의 베이스 진행이 잘 들리고 연결되어야 한다. 성악선율은 순차적인 선율진행을 보이고, 리듬분포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 A부분 】 (1~9마디)

곡의 처음에 지시되어 있는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을 가지고'(avec un *sentiment tendre et intime*), 느리고 작게(*Lent, pp*), 항상 아주 레가토로(*toujours très lié*) 그리고 매우 부드럽게(*très doux*) 연주한다.

전주부 제 1마디는 셈여림이 *pp*로 시작해서 *toujours très lié*(아주 레가토로)라는 나타냄 말이 함께 나와 있다. 전주부의 아르페지오의 시작은 조금씩 변형되어서 곡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해 준다. 연주 할 때는 매우 레가토 해서 편안한 느낌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왼손의 연결부분인 엄지손가락의 릴렉스(*relax*)로 소리가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악보 1)

57) 여성운(*la rime féminine*): 시행의 마지막이 무성 e로 끝나는 것으로 그 직전에 액센트가 붙으며 동음을 이루는 각운.

58) 남성운(*la rime masculine*): 시행의 마지막이 무성 e로 끝나지 않는 것으로, 각 행의 끝음절에 마지막에 액센트가 있는 각운.

59) 교차운: 남성운과 여성운이 서로 번갈아가며 계속 진행되는 형태

<악보 1 : 제 1마디>

Lent avec un sentiment tendre et intime

toujours tres lie

*pp*

A부분에서 성악 선율은 B $\flat$  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피아노 성부에서는 E $\flat$  음이 지속음으로서 나타난다.

제 2~5마디는 가사 Dans ton coeur dort un clair de lune(당신의 마음속에는 달빛이 잠자고 있다)의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도록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주한다.

제 4마디에서는 뒤파르크의 특징적인 낭송조 선율이 나오는 데 달빛이라는 어렴풋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또한 노래 선율의 'lune d'été'에서 자연스럽게 *dim.* 될 수 있도록 피아노 성부의 bass음(E $\flat$  → D → E $\flat$ )음들을 너무 무겁지 않게 주의하면서 연주한다. (악보 2)

<악보 2 : 제 2~5마디>

très doux

Dans ton coeur dort un clair de lune, un doux

낭송조 선율

clair de lune d'e - lé

제 6~7마디는 반주부의 베이스 G음을 필두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제 7마디에서는 반주부의 베이스음이(A $\flat$  → G → F → B $\flat$ )으로 하행 진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악 선율은 제 7마디에서 상행 진행한다. 이 부분에서는 가사의 내용 la vie importune(힘든 일상)을 반주부에서 리듬을 분할하고 *cresc.*로써 힘겨운 느낌을 나타낸다. (악보 3)

<악보 3 : 제 6~7마디>

6

poco cresc.

상행진행

cresc.

Et pour fuir — la vie im por tu ne

poco cresc.

cresc.

하행진행

제 8마디 성악 선율의 고음 G(Je)에서는 선율이 하행하면서 noierai(빠지다)의 느낌을 *dim.*와 함께 나타내었고, 제 9마디에서는 성악 선율의 상행으로 가사의 clarté(빛)을 더 강조할 수 있고, 그 빛에서 느낄 수 있는 희망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 9마디에서 *poco rit.*와 뒤에 바로 *a Tempo*로 이어지면서 짧은 간주 후에 나오는 그 다음 프레이즈를 연결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보여 진다. (악보 4)

<악보 4 : 제 8~9마디>

【 B부분 】 (10~18마디)

B부분은 잦은 전조와 7화음 사용이 두드러진다.

제 10~11마디 간주는 12마디에서 나오는 J'oublierai les douleurs passées(나는 지나간 슬픔들을 잊어버릴 것이다)라는 가사를 암시함으로써 지나간 고통과 슬픔의 느낌을 가지고 연주한다.

제 12마디는 *poco più f* 로 시작되는데, 이는 mon amour(나의 사랑이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고, 지나간 슬픔을 떨쳐버리는 희망을 담고 힘 있게 표현한다.

제 13마디 mon amour(나의 사랑이여!)부분은 앞부분과는 상반되게 *p*로 부드럽게(*très doux*)연주하는데 이는 억제된 감정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불러야 함을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듯이 뒤파르크 가곡의 특징 중의 하나인 낭송조로 표현하며 *A b* 장조의 으뜸화음 화음선에 따라 밝은 느낌을 준다. 또한 mon amour 앞, 뒤로 숨표는 이 부분을 좀 더 단절된 느낌으로 여유 있게 부를 것을 나타낸다. (악보 5)

<악보 5 : 제 10~13마디>

10

12 *poco piu* **f**

Tu blie rai les douleurs pas sé es, Mon amour,

*poco piu* **f**

*tres doux* **p**

AbM의 으뜸화음

제 14~15마디는 가사의 내용에 나와 있는 triste coeur(슬픈 마음)과 pensées(생각)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반주부에서 화성적인 리듬이 두 박에서 한 박씩 짧아져서 두박의 진행이 네 박으로 분할되어져 나타나는데, 이 리듬의 분할을 통해 움직임은 가지고 슬픈 감정을 더 잘 표현 할 수 있다.

제 15마디에서는 g b 과 f #의 이명동음으로 인하여 E b 장조 → F # 장조로 이동하고 반면에 성악 선율은 B b 과 B ♯ 두 음로만 진행 되는데, 음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반음을 통해서 분위기를 달리 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

로 *poco cresc.*와 함께 몰아치는 감정을 보여준다.

제 16~18마디는 *calme*(고요한)을 표현하므로 *p*로 연주되고 잠재운다는 내용과 함께 *dim.*로 단계적으로 작아진다. 성악 선율에서는 F# 장조 I 도의 사용으로 평온한 느낌을 나타내어 준다. (악보 6)

<악보 6 : 제 14~18마디>

14

Quand tu ber ca ras mon tris te et mes pen sé es

*poco cresc.*

*p*

이명동음전조부분

16

Dans le calme ai mant de tes bras!

*p*

F# M I

*dim.*

【 C부분 】 (19~37마디)

제 19~25마디에서는 제 19마디에서 F#에서 E♭ 장조로 전조하고 있고, 22마디에서 이명동음적 전조를 보이면서 D장조로, 23마디에서는 d단조로, 25마디에서는 이명동음적 공통음을 통해 본래의 E♭ 장조로 돌아간다.

제 19마디 간주에서는 Tu prendras ma tête malade(당신은 상처 입은 내 머리를 치유하고)의 가사를 연상하면서 적극적인 터치로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표현해 주는데, F#에서 E♭ 장조로 전조되는 것을 느끼면서 연주해주도록 한다.

제 20마디부터는 클라이막스(climax)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피아노 부분과 성악 부분이 오버랩(overlap)되어서 또 다른 멜로디를 25마디까지 노래한다. 이 부분에서는 성악부와 반주부와의 이중주의 느낌으로 성악선율과 피아노 대선율의 만남을 조화롭게 조율하면서 *expressif*하게 표정이 풍부하도록 연주한다.

제 21마디 감탄사 oh!에서는 좀 더 강하게 *f*로 표현해 주는데, 이는 감탄사와 성악부 최고음인 A음을 사용함으로써, 시인이 상상 속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증 5도 도약하고 A장조 으뜸화음의 화음선 하행 선율을 통하여 곡의 절정을 나타내 준다.

제 25마디 노래성부의 C♭ 음은 앞부분의 피아노 선율 마지막 음과 동음으로 마치 피아노 선율의 연장처럼 자연스럽게 *dim.*되어 연주한다. (악보 7)

<악보 7 : 제 19~25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ystems,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 System 1 (Measures 19-20):** The vocal line begins with the lyrics "Tu prendras ma tête ma".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Performance instructions include "cresc." above the vocal line and "cresc." above the piano part. Chord symbols "F#" and "Eb" are indicated below the piano part.
- System 2 (Measures 21-22):** The vocal line continues with "ka de Oh! quel que fois sur tes genoux,".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section marked "AM 으뜸화음" (AM tonic triad) circled in red. Other annotations include "expressif" above the piano part and "피아노 대선을" (Piano accompaniment) with arrows pointing to the piano part.
- System 3 (Measures 23-24):** The vocal line has the lyrics "et lui diras une balade de".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a similar rhythmic pattern. The instruction "피아노 대선을" (Piano accompaniment) is repeated with arrows.
- System 4 (Measures 25-26):** The vocal line concludes with "U ne bal". The piano accompaniment ends with a final chord. The instruction "피아노 대선을" (Piano accompaniment) is repeated with arrows.

제 28~29마디에서는 성악 선율이 낭송조로 Et dans tes yeux pleins de tristesses(슬픔에 가득찬 눈)을 말하고 있고 반주부에서는 오른손 윗 성부(C# → D → D# → E)는 와 왼손 베이스(G → G → C)로 반진행하고 반복 진행하고 있으며, 반음씩 진행되는 오른손 윗 성부의 멜로디 라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제 30~31마디 성악선율에서는 단 7도로 도약하여 Tant de baisers et de tendresse(수많은 입맞춤과 사랑을 마실 것이다)의 가사 내용처럼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cresc.*하다가 Tant 바로 직전의 숨표를 줌으로써 더 강조하면서 강하게 노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악보 8)

<악보 8 : 제 28~31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8 and 29. The vocal line is marked 'tres doux' and contains the lyrics 'Et dans tes yeux pleins de tristess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right-hand melody with a '반진행' (half-step progression) annotation and a left-hand bass line with a '반진행' annotation. A dynamic marking 'f' is present at the end of the system.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30 and 31. The vocal line contains the lyrics 'Dans tes yeux a lors je boi rai Tant de bai'.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cresc.' markings in both hands and a dynamic marking 'f' at the end of the system.

제 33~34마디는 노래의 마지막 프레이즈이지만 피아노가 곧바로 멜로디를 이어받아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후주는 두 번의 멜로디가 나오는데 *sempre dim.*로 점점 작게 표현하면서 메아리가 울려퍼지는 듯하게 레가토로 사라지게 연주한다.

마지막 마디인 37마디에서는 *rall.*로 점점 느려지면서 메아리의 울림을 나타내는데 둥글고 깊게 연주하면서 코드로 마무리 한다. (악보 9)

<악보 9 : 제 33~37마디>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3 to 37. The top system contain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for measures 33 and 34. The vocal line includes the lyrics "Que peut-ê tre, je gué ri rai" and is marked with "dim". The piano accompaniment also starts at measure 33 and is marked with "dim". The bottom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for measures 35, 36, and 37. It is marked with "sempre di. m." and "rall.", and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repeat sign.

앞서 살펴본 결과 Chanson Triste는 #조와 b조의 원활한 전조를 위해서 이명동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곡 전체에 시인의 사랑의 감정이 흐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일한 모티브의 사용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2) L'Invitation au Voyage (여행으로의 초대: 1870)

(1) 시의 해석<sup>60)</sup>

Mon enfant, ma soeur,	내 아이, 내 누이야,
Songe à la douceur	얼마나 달콤한 가 생각해보렴.
D'aller là-bas vivre ensemble,	먼 곳으로 떠나 함께 사는 것,
Aimer à loisir,	그대 닮은 나라에서 한가함을 사랑하고
Aimer et mourir	사랑하다 죽으리!
Au pays qui te ressemble!	당신을 닮은 그 나라 <sup>61)</sup> 에서.

Les soleils mouillés	물에 젖은 태양과
De ces ciels brouillés	안개 낀 하늘
Pour mon esprit ont les charmes	나의 영혼을 사로 잡네
Si mystérieux	눈물 너머로 반짝이는
De tes traîtres yeux,	네 종잡지 못할 눈의
Brillant à travers leurs larmes	그렇게도 신비로운 매력을.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그곳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Luxe, calme et volupté	풍부하고 평온하며 사랑의 쾌락이 있다

60) 보들레르, 정기수 역, **악의 꽃**, 1995, 서울:정음문화사

61) 당신을 닮은 그 나라 : 네덜란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네덜란드는 시인의 몽상에 있어 출발점을 이루고 있을뿐, 그가 환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 밖의 환상의 나라이다.

Vois sur ces canaux  
Dormir ces vaisseaux  
Dont l'humeur est vagabonde;  
C'est pour assouvir  
Ton moindre désir  
Qu'ils viennent du bout du mond

보라. 이 운하(바다)에서  
배들이 잠자고 있다.  
방랑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그것은 당신의 최소한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땅 끝에서부터 왔다

Les solils couchants  
Revêtent les champs,  
Les canaux, la ville entière,  
D'hyacinthe et d'or;  
Le monde s'endort  
Dans une chaude lumière!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Luxe, calme et volupté!

저무는 해가  
물을 들인다. 들과  
운하와 마을 전체를  
황적색과 황금빛으로  
세상은 잠이 든다.  
따스한 빛 속에서  
그곳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풍부하고 평온하며 사랑의 쾌락이 있다

## 2) 악곡 분석과 반주 연구

L'Invitation au Voyage(여행으로의 초대)는 1870년 뒤파르크가 22세 때의 작품으로 C. Baudelaire의 시에서 발췌하여 쓴 곡이다.

이 시는 「악의 꽃: Les Fleurs du Mal」<sup>62)</sup>시집 중 「우울과 이상」편 53번째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래의 시는 3절로 되어 있지만 뒤파르크는 두 절(1절과 3절)만을 작곡했다.

시인은 그의 연인을 꽃으로 가득한 들과, 안개 낀 하늘, 평화로운 운하로의 환상의 여행에 초대하고<sup>63)</sup>, 자신이 꿈속에서 그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나라는 보들레르가 산문에서 고백한 대로 네덜란드이다.<sup>64)</sup>

곡의 형식은 A-B-A'-C으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

62) 악의 꽃-Les Fleurs du Mal: 1857년에 간행된 보들레르의 대표적인 시집으로 원죄 의식을 바탕으로 고뇌와 회한, 신에 대한 숭배와 저주, 이상적 순수미에 대한 추구 따위가 뒤얽혀 있는 악마주의의 대표작이다. '우울과 이상', '과리 풍경', '숲', '악의 꽃', '반항', '죽음' 등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1편의 시가 들어 있다. 각 편이 독립된 서정시이면서 동시에 전체가 하나의 구조와 틀로 짜여 있다. 시학·기법·창작태도 등에서 상징주의의 선구자로서의 역량을 보이면서 한 영혼의 세계를 그린 서사시이다. 종교적인 신비와 이교도적인 감수성의 결합을 바탕으로 암시와 음악효과를 최대한 살린 현대시의 효시로서 대부분의 후대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시집은 시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읊고 있으며 전체가 하나의 대 건축처럼 일관된 의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원죄의식에 바탕을 둔 고뇌와 회한, 이상적 순수미를 추구하는 의욕과 붕괴와 하강에의 취미, 신에 대한 숭배와 저주, 이와 같은 복잡한 근대인의 심리가 에로티시즘과 플라토너리브가 한데 어울려 수없이 많은 연애시를 펼쳐 놓았다. 또한 시각과 청각과 후각의 세 가지 다른 감각을 하나로 뒤섞는 만물조응(萬物照應)의 수법은 상징주의의 선구로서 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3) Carol Kimball,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上)**,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p.92

64) Pier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가사·딕션·연주를 위한 해설, 심선화 옮김, 서울: 청림출판사, 2001, p.111

<표 4> L'Invitation au Voyage (여행으로의 초대)의 악곡 분석

형식	전주	A	B	A'	C	후주
마디	1-2	3-31	32-39	40-57	58-82	83-88
템포	Presque lent		Un peu plus vite	I-er mouvement	Un peu plus vite	
박자	6/8		9/8	6/8		9/8
조성	c					C

시의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2연 14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행의 후렴구를 가진다.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A(a-b) A'(a'-c)로 변형된 유절가곡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멜로디의 리듬은 단순하나 피아노의 반주부에서 화성적 색채의 변화로 단조로움을 피해주었고, 시의 내용과 이미지를 표현하여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화성적인 변화는 이 곡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 ii 화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Fr. 6(증 6화음)이며, 증 6화음의 사용으로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다.

【 A부분 】 (1~31마디)

A부분 전체는 작곡가가 지시한 대로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안개 낀” 축축한 공기 중에 빛나는 햇빛을 생각하면서 연주 한다.<sup>65)</sup>

제 1~2마디는 전주부분으로 반음계로 이행되며, 증 5도를 포함하는 Fr. 6를 사용함으로써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다. (c minor의 i → ii : French sixth chord) 그리고 *pp*로 시작되는데 가사의 내용을 떠올리며 꿈꾸는 듯하게, 이상의 곳을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은은하게 표현하며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연결 해 준다.

제 3마디 *doux et tendre* 나타냄 말과 같이 부드럽게 시작하여 제 8마디부터의 *cresc. decresc.*를 성악파트와 함께 반주에서도 함께 표현해 주는데, 이것은 *vivre ensemble*(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비스럽고 이상의 그곳을 지향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타낸다. 이 부분에서는 피아노와 성악 모두 급격한 *dynamic*의 변화 없이 모두 *pp*로 연주하며 반주부분의 지속음(*pedal point*)을 사용함으로써 시인이 상상하는 이상의 그곳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 10)

---

65) Pie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프랑스 예술 가곡의 해석-가사·딕션·연주를 위한 해설, 심선화 옮김, 서울: 청림출판사, 2001, p.111

<악보 10 : 제 1~9마디>

Presque lent Doux et tendre

Mon en

cm : i ii

pedal point

4  
fant, ma soeur, songe à la dou-

7  
-ceur D'al ler là-bas vivre en sem

10  
-ble Ai

제 18~22 마디는 *Les soleils mouillés*(물에 젖은 태양), *De ces ciels brouillés*(안개 낀 하늘)의 가사를 마음에 담고 잔잔하면서도 고르게 표현해 준다.

제 22마디에서는 *Retenez un peu*(조금 느리게)의 지시어가 나오는 데, 이는 *pour mon esprit*(나의 마음=영혼)을 강조해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느리게 연주하고, 제 23마디 *a tempo*로 다시 흐르게 연주 한다. (악보 11)

<악보 11 : 제 18~23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8-20 and includes the lyrics: "Les soleils mouillés De c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teady eighth-note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a similar pattern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1-23 and includes the lyrics: "ciels brouillés pour mon esprit ont les". This system includes performance instructions: "Retenez un peu" (slowed down), "a tempo" (return to original tempo), and "dim" (diminuendo).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same rhythmic pattern, with some phrasing changes in the right hand.

제 30마디 성악 선율 G음은 *pp*로 노래하여야 하는데, 앞서 23마디에서부터 진행되는 *dim.*를 효과적으로 점점 작아지도록 표현하면서 제 29마디에 있는 *dim.*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예비하면서 준비한다. 고음인 G에서는 매우 부드럽게(*très doux*)라는 지시어와 같이 해야 하므로 반주는 성악가의 준비를 위해 여유를 가지고 함께 호흡한다. 그리고 larmes(눈물)의 가사에서는 C장조의 으뜸화음 코드가 등장하는데 역설적인 표현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악보 12)

<악보 12 : 제 29~31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ree measures (measures 29, 30, and 31). The top staff is the vocal line, and the bottom two staves are the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The vocal line lyrics are 'à tra vers leurs lar mes'. The first measure has a 'dim' marking above the staff. The second measure has a 'très doux' marking above the staff.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dim' marking below the first measure and a 'pp' marking below the second measure. There are various musical notations including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throughout the score.

【 B부분 】 (32~39마디)

후렴구 32마디부터는 *Un peu plus vite*(조금 빠르게)라는 지시어와 함께 6/8에서 9/8로 박자가 변화된다. 피아노도 코드와 형태도 갑자기 변화하는데, 매우 긴 음가로 천천히 움직이고 변화한다. 이때 성악 선율은 신비한 환상의 그 곳을 말하면서 황홀감을 표현하듯 작게 낭독하듯이 연주한다.

가사의 *luxé*(평온), *calme*(고요), *volupté*(즐거움=쾌락) 단어의 의미처럼 피아노 반주부의 화음은 조용히 울려 퍼지듯이 작고, 아름답고, 평온하게 연주하며, 맨 윗 성부의 (A → A<sup>b</sup> → G → A → A<sup>b</sup> → G → F → E) 음을 충분히 울려주면서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해 준다.

제 38마디의 *rall.*는 "lu"음절에 있는 마지막 8분 음표를 급하지 않게 연주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모음을 길게 연장하여 피아니스트가 꾸밈음을 여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악보 13)

<악보 13 : 제 32~39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2-39. The top staff is the vocal line, and the bottom staff is the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has the lyrics "Là tout n'est qu'ordre - et beau te". Above the vocal line, there is a tempo marking "Un peu plus vite" and a dynamic marking "pp". A note in the vocal line is marked with "낭송조 선율" (Narrative Melody). The piano accompaniment consists of chords and arpeggiated figures.

(악보 계속)

낭송조 선율

Lu xe, cal me et vo lup té

【 A'부분 】 (40~57마디)

박자가 다시 6/8로 변화하고 A의 반주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피아노가 제 39~40마디에서 장조와 단조 화음 사이를 연결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듯이 연주한다.

제 50마디에는 피아노 파트의 베이스에 주선율이 들어가는데 *expressif*(표정이 풍부하게) 지시어와 같이 감정을 실어서 성악 파트와 이중주를 하듯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진행시킨다. 피아노파트의 주선율은 1절의 성악 선율 “Aimer à loisir, Aimer et mourir”에서와 같은 선율이다

제 53~57마디에서 “Qu'ils viennent”는 “monde”까지 *dim.*없이 *f*로 부른다.<sup>66)</sup> 이는 그 느낌을 가지고 클라이막스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땅끝에서 왔다”라는 가사 내용처럼 깊은 곳을 의미하므로 제 54마디의 피아노 파트의 왼손 D음 베이스는 깊게 울림을 가지고 연주 한다. (악보 14)

66) Pier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W.W.Norton&Company:New York,1976,p.78

<악보 14 : 50~57마디>

*piu f*  
C'est pour as sou vir ——— Ton moin dre de

*piu f*  
expressif

피아노 대선율

*cresc. molto f*  
sir Qu'ils vien nent du bout — du

*cresc. molto f*

*dim*  
mon de

*dim*

【 C부분 】 (58~88마디)

C부분은 가사의 내용처럼 지는 태양의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반주부의 9잇단음표에 의한 아르페지오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성악가의 목소리는 풍부하고 폭 넓은 낭송조로, 그 빛깔이 아주 따뜻하여 빛나는 석양의 화려함을 암시하여야 한다.

제 58마디에서는 C장조로 전조가 이루어지는데, 반주부에서 새로운 음형(9잇단음표에 의한 아르페지오)이 나타나고 화음을 구성하는 음 중에 비화성음이 섞여져 있는 첨가화음(added chord)를 주로 사용하여 색채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비화성음, 분산화음을 사용하며 *Un peu plus vite*(조금 빠르게)로 바뀐다.

제 58~59마디의 멜로디 라인에서 처음으로 증 4도를 이루었고, 단·장조적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선율은 다시 단 2도, 완전 4도 상행하고 제 62마디까지는 순차하행을 한다.

제 62마디의 D음은 보조음을 거쳐 순차상행 한 후 제 64마디에서 단3도 하행하고 제 65마디에서 완전 4도 하행한다.

제 63마디의 “la ville entière(마을 전체)”에서의 2잇단음표는 “음 하나 하나를 조금 더 확실히(*poco marcato*)”한다. 이때 피아노 반주 부분은 점점 더 음폭을 넓힘(*cresc.*)으로 해서 넓은 들판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준다. (악보 15)

<악보 15 : 58~65마디>

58 *Un peu plus vite* *mf* 증4도  
 Les so leils — cou

58 CM

60 단2도 완전4도  
 chants — Re vè tent — les

62 보조음 poco marcato  
 champs, — les ca naux — la ville — 2 — en

64 *cresc.*  
 tiè — re

69마디부터의 반주는 “Dans une chaude lumière(따뜻한 빛)”을 음역의 이동과 *cresc. molto*로 빠른 시간 안에 커지는 급격하면서도 강한 *cresc.*와 *ff*로 이 부분의 절정을 강화 시켜 주고 있다. 또한 낮은 베이스 음을 울림으로 해서 깊은 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악보 16)

<악보 16 : 제 69~72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69-72. The vocal line starts with the word "dort" and then "Dans une chau de lu".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dense, arpeggiated texture. Dynamic markings include "cresc. molto" above the vocal line and "cresc. molto" below the piano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73-74. The vocal line has "miè" and "re!".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a similar texture. Dynamic markings include "ff" above the vocal line and "poco a poco dim" below the piano accompaniment. There are also some markings below the piano part, possibly indicating fingerings or specific voicings.

제 75마디에서부터 후렴이 다시 나오는데 *pp*로, 그러나 풍부하고 강하게, 정확한 템포로 한다. 마지막까지의 선율은 C음과 G음 두 음으로 앞의 제 32마디 부분과 같이 다시 독백하는 듯한 낭송조로 노래를 마친다.

제 75~76마디의 반주부의 오른손은 *pp*로 왼손은 *mf*로 *cantabile*(노래하면서)의 지시어와 같이 충분히 노래해주고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연주하는데, 앞서 제 10~12마디의 성악 선율이 피아노 반주부의 대선율로써 다시금 재현된다. 이때 *Là, tout n'est qu'ordre*(그곳에는 모든 것이 질서있다)의 가사는 낭송조로 말하고 있지만, 피아노 부분이 음악의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이상의 그곳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 79~80마디에서는 *sempre pp*로 제 75~76마디와 같이 아주 작게 연주하고, 처음의 후렴구와 동일한 성악 선율 G음으로 *luxe*(풍부함)와 *calme*(고요함)을 잔잔하게 낭송조로 이야기 하고 있다. 피아노 반주부에서는 제 13~14마디의 성악 선율과 동일한 대선율이 나타나는데, 1연 시의 동경의 대상을 생각하며 *Aimer et mourir*(사랑하다 죽으리!)의 가사를 다시금 재현함으로써 그곳에 대한 마음을 *cantabile*로 노래하고 있다.

제 81마디에 *presque sans ralentir*(거의 느려지지 않도록)의 지시어가 나오는데, 앞 후렴구 부분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서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 82마디 *a tempo*는 피아노 부분의 긴 후주의 준비를 위해서 지시어로 나타나 있으므로 정확하게 지켜준다. (악보 17)

<악보 17 : 제 75~82마디>

Musical score for voice and piano, measures 75-82. The score includes vocal lines with lyrics and piano accompaniment. Key markings include *pp*, *cantabile*, *mf*, *sempre pp*, *presque sans ralentir*, and *a tempo*. Annotations in Korean point to specific musical features like "낭송조 선율" and "제 11~12마디 성악선율 재현".

Lyrics: La tout n'est qu'ordre et beau té, Lu xe, calme et vo lup te!

제 83~88마디는 점차적으로 시가가 긴 음형으로 변화하면서 저절로 긴장이 완화되는 음형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rit.*로 진행되며 세상 깊이 잠이 드는 모습을 반주 리듬에서 9-6-4-3 잇단음과, 점 4분음표와 온음표로 펼쳐지는 음으로써 음의 길이를 늘려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마무리 하고 있다. 마지막 코드는 긴 여운을 가지고 울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준다. (악보 18)

<악보 18 : 제 83~88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of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shows measures 83-86, with the right hand playing a melodic line of eighth notes and the left hand providing a bass line. The instruction "En diminuant jusqu'a la fin" is written below the first system. The second system shows measures 87-88, with the right hand continuing the melodic line and the left hand playing a bass line. The instruction "rall." is written above the right hand in measure 87, and "ppp" is written below the right hand in measure 88.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앞서 살펴본 결과 *L'Invitation au Voyage*은 준낭송조의 멜로디 작법이 특징적인데, 그것은 샤를 보들레르의 시를 바탕으로 한 이상의 그곳을 향한 꿈같은 노래의 황홀한 특질을 강화한다. 또한 단조화음에서 ii 화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Fr. 6(중 6화음)은 뒤파르크가 즐겨쓰던 화성으로 곡의 이미지를 묘사하여 준다.

### 3) Extase (황홀: 1878)

#### (1) 시의 해석

Sur un pâle mon coeur dort                    창백한 백합 위에서 나의 마음이 잠든다  
D'un someil doux comme la mort                죽음과도 같은 달콤한 잠에

Mort exquise, mort parfumée                    우아한 죽음, 향기로운 죽음  
Du souffle de la bien-aimée                    내 사랑하는 이의 숨결 곁에서

Sur ton sein pâle mon coeur dort                당신의 창백한 가슴 위에서 내 마음  
D'un sommeil doux comme la mort                잠든다. 죽음처럼 달콤한 잠을 잔다.

#### (2) 악곡 분석과 반주 연구

Extase(황홀)은 뒤파르크가 1878년에 작곡한 곡으로 후기 고답파 시인 라오르의 시에 부쳐진 곡이다. 제목에서 짐작하듯이 격렬하고 강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제목인데 반하여 시의 내용은 아름답게 회화적으로 그려내어 가사 내용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였다.<sup>67)</sup>

뒤파르크는 느리게 전개되는 가사를 기교적으로 잘 조정해 가는데, 점차적인 강도의 발전은 주목할 만하고 매우 아름답다.

67) 홍은주, **뒤파르크의 12가곡 반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2004, p.43

그는 의도적으로 바그너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가곡을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sup>68)</sup>」 스타일로 작곡하였는데, 피아노 스타일을 가리켜 바그너적인 야상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up>69)</sup>

이 곡은 A-B-A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Extase(황홀)의 악곡 분석

형식	전주	A	B	간주	A	후주
마디	1-9	10-17	18-25	26-33	34-41	42-48
템포	Lent et calme					
박자	3/4					
조성	D					

전체적인 구조는 A-B-A의 형식이다. 피아노가 풍부하게 쓰인 전주, 간주, 후주들과 함께 이 가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성악은 여유롭게 여섯 행밖에 안 되는 가사를 전개해 간다.

68)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스타일(특색)

- 1) 라이트 모티프(악극이나 표제음악 등에서 곡 중의 주요인물이나 사물, 특정한 감정 등을 상징하는 동기, 즉 주제적 동기를 취하는 악구(樂句)를 이르는 말.)의 구사
- 2) 무한선율의 사용, 즉 선율이나 화성에서 무한히 이어지는 선율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사와의 결합을 한층 긴밀히 하는 데 있다.
- 3) 반음계와 enharmonic(근대음악에서 음이름과 기보법은 다르나 12평균율상 같은 음이 되는 것 또는 그 음.)의 빈번한 사용

69) Carol Kimball, **Song 예술가곡의 스타일과 문헌에 대한 총서(上)**, 채은희 역, 서울: 도서출판 형설, 2004, p.91

【 A부분 】 (1~17마디)

제 1~9마디까지는 전주부분으로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멜로디가 반음계로 상행 진행하면서 미묘하고 황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지시어에 나와 있듯이 *una corda*와 *Lent et calme*(느리고 고요하게), 그리고 *très lié*으로 시작한다.

오른손 윗성부는 멜로디 라인을 레카토 하면서 프레이즈를 연결해주고, 잡드는 고요한 분위기를 떠오르며 내성의 움직임은 일정하고 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베이스의 지속음(E음, A음)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몽롱하고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제 4~5마디의 윗 성부 멜로디는 리듬이 약간 변형되어서 반복되면서 나타난다.

제 8~9마디에서는 사라지듯이 표현하면서 성악선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분위기를 유지하고 모나지 않게 레가토로 연주한다. (악보 19)

<악보 19 : 제 1~9마디>

(악보 계속)

제 10~11마디 피아노 파트의 베이스음은 성악선율의 첫 음을 제시하면서 멜로디 라인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악 선율은 Sur un p<sup>â</sup>le(창백한 백합)을 묘사하면서 반음과 온음의 미묘한 진행을 동요 없이 부르고, 피아노 반주부는 내성과 외성의 하모니를 두드러지는 음 없이 고요하게 진행해 준다.

제 14~17마디는 반주부의 오른손 윗 성부가 상행하면서 D'un someil doux(달콤한 잠)을 성악선율의 멜로디와 함께 연주하고 있다. 또한 comme la mort(죽음과도 같은)을 강조하기 위하여 숨표를 표시하고 *rit.*도 제시하고 있다.

제 16마디에서는 낮은 베이스 음과 반감화음(half diminish chord)을 사용하여 mort(죽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 mort(죽음)는 D'un someil doux(달콤한 잠)을 함께 상징하고 있는데 신비로움과 황홀함을 표현해주고 있다. (악보 20)

<악보 20 : 제 10~17마디>

très doux

Sur un lys pâ le mon coeur dort

dim. rit. a tempo

D'un sommeil doux com me la mort..

dim. rit. a tempo pp

【 B부분 】 (18~33마디)

제 18~21마디까지는 반주부가 조금 변형되는데, 뒤이어 나오는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 흥분이 고조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더욱 움직이는 리듬을 사용하면서 숨이 가빠오는 소리를 나타내어 준다.

제 22~25마디에서는 bien-aimée(사랑하는 이)의 가사와 함께 음악적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제 23마디의 *poco cresc.*로부터 감정이 고조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제 24마디에는 *dim.*와 *rit.*를 통해서 최고음(A음)을 크지 않고 절제하면서 표현한다. 이 부분은 서정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고, 내면적으로는 외설적이라고 할 만큼의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황홀한 느낌을 노래하고 있어 은유적이고 내포된 내용을 이해하여 표현해야 한다. (악보 21)

<악보 21 : 제 18~25마디>

The image shows two systems of a musical score. The first system contains the lyrics "Mort ex qui se, mort par fu mé" and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The second system contains the lyrics "e Du souf fle de la bien ai mé e..." and includes performance markings: *poco cresc.*, *dim.*, *rit.*, and *a tempo*. The piano accompaniment in the second system also includes markings for *poco cresc.*, *cum*, and *rit.*

제 26~33마디부터는 간주로 앞의 전주부분을 한 옥타브 위로 음역을 옮겨서 그대로 진행하는데, 이는 양손 음역이 모두 올라가서 감정의 절정을 보여주며 전주의 고요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고조된 느낌을 살려 연주한다.  
(악보 22)

<악보 22 : 제 26~33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of piano notation.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26 to 30. The right hand plays a melodic line with slurs, marked with *poco cresc.* and *dim.* The left hand provides a rhythmic accompaniment with eighth notes.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31 to 33, continuing the melodic and accompaniment patterns.

【 A부분 】 (34~48마디)

제 34~37마디는 첫 번째 A부분보다 더 작게 *pp*로 연주하고 반주부의 오른손 첫 박의 액센트를 인지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강조가 되도록, 등근 음색으로 음량의 균형을 잘 맞추어 준다. 이는 제 1~17마디와 비교 될 수 있도록 하는 작곡가의 의도가 보여 진다.

제 38~41마디에서의 반주부의 멜로디(G → A → B → C# → D → E)는 가사의 *mort*(죽음)을 향하여 상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dynamic은 *dim.*으로 이는 *mort*(죽음)의 단어로 사랑의 절정에 도달 했을 때의 느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악보 23)

<악보 23 : 제 34~41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for measures 34-37. The vocal line has lyrics: "Surtout sein pâ le mon coeur dort".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melody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Dynamics include *pp* and *dim.*. The second system shows measures 38-41. The vocal line has lyrics: "D'un sommeil doux comme la mort...".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the same melodic pattern. Dynamics include *rit.* and *a tempo*. A note "상행진행" (Ascending Progression) is written below the piano accompaniment in the second system.

제 42~48마디의 후주에서는 피아노 파트의 윗 성부에서 선행된 성악 프레이즈들 특히 *Mort exquisite*에서 쓰인 멜로디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손의 내성부는 4분음표로 리듬이 확장되어져서 나타나는데 이는 죽음과도 같은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제 47마디의 *poco rall.* 에서는 dort(잔다)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른손의 긴 음가와 페르마타(∞)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서서히 느려지면서 조용하게 묘사해 준다. (악보 24)

<악보 24 : 제 42~48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42 to 46. The right hand (RH) plays a melodic line with long notes and fermatas, with annotations '제 18~19마디의 성악선율 재현' and '제 20~21마디의 성악선율 재현'. The left hand (LH) provides a steady accompaniment of eighth notes. Dynamics include *pp* and *sempre dim.*.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7 to 48. The RH continues with long notes and a fermata, with the marking *poco rall.* appearing above the staff. The LH continues with eighth notes.

Extase는 일관된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점차적인 강도의 발전으로 곡의 흐름을 주도한다. 피아노 스타일은 바그너적인 야상곡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곡들의 비해 짧은 곡이지만 바그너적인 기틀<sup>70)</sup>을 보이는 짜임새에서 성악과 피아노 사이의 세심한 상호 작용이 잘 만들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몽롱하고 꿈꾸는 듯한 성악 선율은 여섯 행의 가사를 여유롭게 노래한다.

---

70) Denis Stevens, **A History of Song**, W.W.Norton&Company: New York·London, 1970, p.210

4) Le Manoir de Rosemonde (로즈몽드의 정원 1879)

(1) 시의 해석

De sa dent soudaine et vorace, 그것은 갑작스럽게 탐욕스러운 이빨을 가지고  
Comme un chien l'amour m'a mordu 사랑은 나를 물어뜯는다. 개처럼  
En suivant mon sang répandu, 내가 흘린 피를 따라오면  
Va, tu pourras suivre ma trace 너는 나의 자취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rends un cheval de bonne race, 혈통이 좋은 말을 타고  
Pars, et suis mon chemin ardu, 나의 험한 길 따르라  
Fondrière ou sentier perdu, 함정(늪)이나 잃어버린 오솔길을 통해  
Si la course ne te harasse! 만일 말 타는 것이 그대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면

En passant par où j'ai passé, 너는 내가 지나갔던 길을 지나가면서  
Tu verras que seul et blessé 홀로 있고 상처받은 모습을 볼 것이다.  
J'ai parcouru ce triste monde 나는 이 슬픈 세상을 배회하였고,

Et qu'ainsi je m'en fus mourir 그리고 나의 죽음은 다가온다  
Bien loin, bien loin, sans découvrir 저 멀리, 저 멀리, 발견되지 않은  
Le bleu manoir de Rosemonde. 그 푸른 로즈몽드 정원

(2) 악곡 분석과 반주 연구

이 곡은 1879년에 소프라노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작시자인 Bonnières에게 헌정되었다. 또한 뒤파르크의 가곡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극적인 곡으로 성악 라인은 강하게 낭송조이고 구성, 분위기, 절정의 순간들은 고전적인 멜로 드라마를 연상시킨다. 반복되는 리듬 패턴이 곡 전체에 나타나져 있으며 어떤 종류의 감정이라도 완전히 배제하고 리드미컬(rhythmical)하게 진행한다.<sup>71)</sup>

여행자가 그가 찾는 목적을 얻지 못한 채 마침내 여행의 끝으로 도달하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서정적인 마무리와 균형을 이룬다.

이 곡은 A-A'-B-C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Le Manoir de Rosemonde(로즈몽드의 정원)의 악곡 분석

형식	전주	A	간주	A'	간주	B	간주	C	후주
마디	1-3	4-9	10-12	13-17	18-20	21-29	30-34	35-52	53-54
템포	Assez vif et avec force							Plus lent	I-er Mouvement
박자	9/8					9/8→3/4		3/4	9/8
조성	d		g	d - C# - d			d		

71) Martin Cooper, **French Music(from the death of Berlioz to the death of Fauré)**,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Toronto, 1951, p.63

이 곡은 d단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대조되는 시를 통한 분류인데, 1부(1~32마디) 2부(33~54마디)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시에 의해서 음악적인 구조가 확장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첫 번째 부분은 *Assez vif et avec force*(매우 빠르고 힘을 가지고) 노래 하면서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표현하여 주고, 끝부분은 느리고 작게, 그리고 불행하게 죽은 사랑하는 사람의 향수를 그리면서 낭송하듯 노래하게 된다. 그러나 뒤파르크는 멜로디, 리듬, 그리고 화음을 통하여 이 두 부분을 조화시키면서 극적인 미와 서정적인 미를 완벽하게 이루었으며 선율 동기(melodic motifs)를 가지고 대조적인 두 부분을 결합력 있게 구성한다.<sup>72)</sup>

피아노의 격정적인 리듬 형태와 왼손부분의 옥타브로 상행하는 베이스 라인이 특징적인 이 곡은 거칠고 격렬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뭔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찾아 헤매는 시인을 그려내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로즈몽드에 관한 전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기 570년경에 살았다는 Lombard왕의 부인(기원전 570년) 이야기인데, 이태리 시인 Alfieri(1749~1803)와 영국의 시인 Swinburne(1837~1909)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긴 서사시의 주제로 사용한 적이 있다.

두 번째 로즈몽드는 영국의 Henry 2세의 왕후에 관한 것인데,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많았고 그 중 Henry왕이 왕후를 찾기 위해 찾아야 했던 미로에 대한 많은 설화의 내용으로 많은 낭만적인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보니에르의 시는 대답 없는 질문으로 신비감을 주고 있다.

시의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4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각운은 1연과 2연이 f-m-m-f의 포옹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3연과 4연은 m-m-f의 혼합운 형태를 지닌다. 그리고 시의 리듬은 각 행마다 8음절로 통일되어져 있다.

---

72) Frits Noske, **French song from Berlioz to Duparc**, Dover publication, Inc: New York, 1970, p.283

【 A부분 】 (1~9마디)

제 1~3마디는 전주로 붙임줄을 이용하여 약박에 액센트가 들어가도록 연주하면서 *agitato*와 같이 앞으로 나가는 듯한, 서두르는 느낌을 리듬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 이 강렬한 리듬은 피아노 반주부의 오른손과 왼손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곡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악보 25)

<악보 25 : 제 1~3마디>

The musical score shows three measures of music. The top staff is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3/8 time signature. The bottom staff is a bass clef. The right hand part starts with a series of eighth notes, with a '2' above the second measure indicating a second ending or a specific fingering. The left hand part has a few notes in the first measure and then rests. The tempo/dynamics marking 'Assez vif et avec force' is circled above the first measure. The dynamic marking 'ff bien rythme' is circled below the first measure.

제 4~5마디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가사 내용 *De sa dent soudaine et vorace*(그것은 갑작스럽게 탐욕스러운 이빨을 가지고)을 반주부의 오른손 화음만으로 시작하게 되는 데, 성악 라인은 레치타티보적인 성격으로 말하는 듯이 가사를 전달하여 준다.

제 6마디의 피아노는 왼손에서 탐욕스러운 개를 연상하면서 *cresc.*로 느낌을 강하게 몰아쳐 주도록 한다.

제 8~9마디에서는 피아노 반주부에서 sec(여운이 남지 않도록)이라는 지시어가 나오는데, 이는 mordu(물어뜯다)라는 가사를 뒷받침하면서 짧고 건조하게 표현하며 제 9마디 마지막 박의 페르마타(∩)에서는 너무 길지 않게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악보 26)

<악보 26 : 제 4~9마디>

4 *f* declame  
De sa dent sou daine - et vo ra ce

7  
Comme un chien l'a mour - m'a mor du.

suivez (sec)

【 A'부분 】 (10~17마디)

제 10마디는 긴장감을 가진  $\curvearrowright$  후에 간주로 시작되는데, 탐욕스러운 이빨을 가지고 물어뜯는 개를 연상하면서  $ff$ 로 강한 터치로 통해 묘사한다.

제 12~13마디는 피아노 반주부가 반복되어 표현되면서 En suivant mon sang répandu(내 흘린 피를 따라오면)의 가사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제 14마디에서는 피아노 왼손부의 상행하는 진행과 *cresc.*로 감정의 흥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sfz*의 출연으로 감정의 폭발을 주도하고 있다.

제 15~17마디에서는 Va, tu pourras suivre ma trace(너는 나의 자취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을 외치고 소리치는 듯이, 성악선율의 G음(Va)을 표현하여 주고 완전 8도로 하행하는 도약 진행을 극적인 긴박감 속에서 *cresc.*와 함께 표현하여 준다.(악보 27)

<악보 27 : 제 10~17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10-17. It consists of three staves: a vocal line (top), a piano right-hand part (middle), and a piano left-hand part (bottom).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Measure 10 starts with a vocal rest and piano accompaniment. Measure 11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 Measure 12 features a vocal line with a fermata on a G note and piano accompaniment. Measure 13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 Measure 14 features a vocal line with a fermata on a G note and piano accompaniment. Measure 15 features a vocal line with a fermata on a G note and piano accompaniment. Measure 16 features a vocal line with a fermata on a G note and piano accompaniment. Measure 17 features a vocal line with a fermata on a G note and piano accompaniment. Dynamics include  $ff$  in measure 10,  $sfz$  in measure 14, and *cresc.* in measure 15.

(악보 계속)

13  
En sui vant mon sang re pan du, Va,

13  
sfz

16  
tu pour ras sui vre ma tra ce...

16  
cresc.

【 B부분 】 (18~29마디)

제 18~19마디는 간주로 제 17마디에서의 *cresc.*를 계속 이어받아 *ff*로 연주하는데, 이는 내 발자취를 좇을 수 있을 것이라는 외침과 함께 고조된 감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느낌이다.

제 19마디 중반부터는 *dim.*해서 제 20마디에서는 *mf*로 서서히 음량을 줄이며 다시 노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악보 28)

<악보 28 : 제 18~20마디>

제 21~22까지는 Prends un cheval de bonne race(혈통이 좋은 말을 타고)의 가사의 말을 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피아노 반주부의 왼손 베이스의 *cresc.*와 상행하면서 2잇단음표로 짚어주는 리듬의 성악 선율을 조화시키면서 진행해 주고, 제 22마디의 피아노 반주부의 왼손 선율이 뚜렷하게 들리도록 연주해 준다.

제 23마디의 성악선율은 Pars(출발!)의 F#음을 부를 때, 묘사되는 장면을 그리면서 마치 말을 타고 출발하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노래하고, 피아노 반주부에서 분위기를 이끌어 준다.

제 24~26마디의 피아노 베이스음들은 반음계적 진행으로 이어져 가는데, Pars, et suis mon chemin ardu, Fondrière ou sentier perdu(나의 험한 길을 따라, 진흙이나 잃어버린 길로!)의 가사처럼 힘든 상황을 반음계로써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제 24마디에서는 성악 선율의 Tritone(3전음)이 나타나는데, 포레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제 27~29마디는 피아노 반주부가 움직이지 않고 chord로 연주하고 있어

서 이때 성악 선율이 자유롭게 *rit.*하여 여유롭게 연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보 29)

<악보 29 : 21~29마디>

un che bal de bon ne ra\_\_ ce Pars, et

suis mon che min ar du, Fon dri ere ou sen tier per

du, Si la cour se ne te ha ras se!

Tritone 진행

반음계

*f*

*cresc.*

*sfz*

*sfz*

*rit.*

*a tempo*

*rit.*

*a tempo*

시의 구분으로는 B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리듬이 성악가에게나 반주자 양쪽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템포도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

【 C부분 】 (30~54마디)

C부분에서는 좀 더 느리고( $\text{♩} = 60$ ), 전적으로 다른 분위기인 *p*와 legato로 부르되 리듬은 언제나 정확하게 표현한다. 앞부분이 리드미컬하게 진행한데 반해 C부분에서는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제 30~33마디 간주에서는 처음 제 30마디에서 *ff*의 다이내믹에서 제 31마디의 *dim. molto* 해주는데, 제 32마디에서는 왼손 베이스가 옥타브 밑으로 내려가면서 작지만 둥글고 깊은 소리를 유도하면서 점차 다른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제 33마디는 박자 3/4로 변화하면서 좀 더 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기 위하여 9/8박자에서 3/4박자로 변화하였고, *rall.*함으로써 피아노가 변화된 템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악보 30)

<악보 30 : 제 30~33마디>

제 34마디부터는 3/4박자로 변박 되면서 좀 더 느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로 조용한 *p*와 *expressif*로써 연주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시의 내용인 꿈에 그리는 연인에게 도달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지냈던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고 있다.

제 34~36마디는 En passant par où j'ai passé(내가 지나갔던 길을 지나가면서)의 가사가 나오는데, 피아노 반주부에서의 코드는 지나간 길의 발자국을 짚어가듯이 작지만 울림 있게 표현해주며, 제 36마디에서 나오는 *poco sfz*는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듯 너무 도드라지게 들리지 않도록 깊게 눌러주듯 연주한다. (악보 31)

<악보 31 : 제 34~36마디>

34 *Plus lent* *p* *expressif*  
 En pas sant par ou J'ai pas se, Tu ver

34 *p* *poco sfz*

제 37~41마디까지 피아노 반주부에서는 리듬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데, 음가가 점점 짧아지고 당김음(syncopation)을 사용함으로써 Et qu'ainsi je m'en fus mourir(그곳에서 것처럼 죽었다)라는 다음의 가사 내용의 절정을 향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cresc.*가 그 느낌을 더해 주고 있다. (악보 32)

<악보32 : 제 37~41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7-41. The top staff is the vocal line, and the bottom two staves are the piano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ras que seul et bles se J'ai par cou ru ce triste te mon de". A "cresc." marking is present in the vocal line at measure 39 and in the piano accompaniment at measures 39 and 40.

제 42마디 피아노의 첫 코드는 *f*로 울림을 가지도록 넓고 크게 제시하여 고통스러운 죽음을 강렬하게 표현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 43~44마디에서는 mourir(죽음)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좀 더 감정과 무게를 실어서 피아노 반주부의 코드를 깊이 있게 표현해 준다. 성악가는 앞서 *cresc.*하면서 감정을 고조 시킨 느낌을 가지고 강하게 노래한다.

제 44~46마디에서는 같은 가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 bien loin(멀리가라)는 *f*로 연주하여 주고, 두 번째는 *p*로 메아리처럼 연주하여 주는데, 이때 성악가는 발음 방법이나 목소리의 색깔로 거리감을 느끼게끔 불러 준다. 또한 온음 3개로 이루어진 음정인 Tritone이 나타난다. (악보 33)

<악보 33 : 제 42~46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The vocal line is in French: "Et qu'ain si je m'en fus mou rir Bien loin, bien loin,".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left hand. A tritone interval is circled in the vocal line, and a piano chord is circled in the piano accompaniment.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like "dim." and "e rall.".

제 47마디에서는 제 46마디의 *rall.*의 마지막에서 피아니스트가 조심스럽게 침묵하다가 첫 코드를 *p*로, 그러나 강세를 주어서 horn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연주한다.<sup>73)</sup> sans découvrir(찾아내지 말고)의 가사내용의 의미를 피아노의 화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면서 성악 선율은 낭송 하는 듯 이야기 해 준다. 이때 *a tempo*로 더 이상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3) Pierre Bernac,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W.W.Norton&Company: New York, 1976, p.65

제 49마디에서 성악가는 Le bleu manoir de Rosemonde(푸른 로즈몽드의 정원을 떠올리지 말라)의 가사를 읊어주며 조용히, 그리고 느려지면서 마지막 프레이즈를 정리하여 주며 성악 선율의 마지막 음에 있는 *a tempo*는 *tempo più lent*를 의미하므로<sup>74)</sup> 피아노 반주부는 매우 느리게 아주 멀리서 희미한 모습을 그리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연주하여 준다. (악보 34)

<악보 34 : 제 47~52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for measures 47-52. The vocal line starts with the lyrics 'sans de couv rir Le bleu ma moir de Ro se'. The piano accompaniment includes a circled 'p' (piano) dynamic, a 'dim.' (diminuendo) instruction, and a circled 'rall.' (rallentando) instruction.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vocal line with the lyrics 'mon de'.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circled 'a tempo' marking and two boxed 'pp' (pianissimo) dynamics. Both systems include triplets in the piano accompaniment.

74) Ibid, p.65

마지막 후주 제 53~54마디에서는 갑자기 처음 빠르기로 돌아가는데, 곡이 시작할 때의 분위기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러나 점차 사라져 가듯이 아주 작은 소리 *pp*로 멀리 울리면서 완전정격종지로 끝맺는다. (악보 35)

<악보 35 : 제 53~54마디>



Le Manoir de Rosemonde는 뒤파르크의 독창가곡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극적인 곡으로 보이며 공포스럽고 강한 장면을 그린다.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두 부분은 각 이미지에 맞게 음악적으로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열정적이면서도 광적인 표현이 특이할 점이다. 피아노의 격정적인 리듬 형태는 곡 전체를 지배하며 이는 곡을 몰아가면서 뭔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찾아 해매는 시인을 그려내고, 그 해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 Ⅲ. 결 론

뒤파르크는 고답파 후기의 시인들과 상징주의 시인의 대표적인 작가 보들레르의 시를 소재로 적은 곡이지만 특징적인 16곡의 독창가곡을 작곡한다. 이 중 출판된 International Music Company의 Duparc 12 songs for voice and piano의 악보를 참고하여 12곡의 작품을 살펴 본 바 낭만주의적인 특성위에 동시대 작곡가들과 여러 작곡가의 영향을 받아 뒤파르크만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특히 시의 묘사적인 색채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피아노성부에서는 성악 성부와 동등한 입장으로 이중주를 이루며 일부 곡에서 관현악 반주로 쓰여 지거나 편곡되어 다양한 색채를 찾고자 하였고 반주의 영역도 확장하였다. 그의 가곡은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신경 쇠약등의 암울했던 그의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를 화성적인 색채와 대담한 반응계적 진행 등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시의 풍부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불협화음적인 증 4도 음정을 적극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바이올린 같은 목소리를 선호한 뒤파르크는 높은 음역의 음들을 많이 사용했고, 레치타티보적인 낭송조의 선율선을 가지고 다양한 음역으로 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뒤파르크만의 특징적인 성격을 가진 4곡을 연구하고 반주를 분석하였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곡 Chanson Triste(슬픈 노래)는 라오르의 시에 부쳐진 곡으로, 시의 주제는 “희망”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내용이며 시인의 슬픈 마음과 고민스런 현실에서 따뜻한 그대를 의지하면서 안식을 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곡은 분산화음(아르페지오)을 이용한 다양한 전조의 반주형을 가지고 있는데,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반주형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조와 b조의 원활한 전조를 위해서 이명동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곡 전체에 시인의 사랑의 감정이 흐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동일한 motive사용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다. 성악선율은 순차적인 선율 진행을 보이고, 리듬분포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낭송조의 선율을 자주 사용하여 서정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B b 음을 중심으로 폭이 좁거나 넓은 진행이 대비되면서 도약진행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클라이막스의 가사들은 A b 장조의 으뜸화음, A 장조 으뜸화음으로 밝은 느낌을 주며 슬픈 현실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다.

제 2곡 L'Invitation au Voyage(여행으로의 초대)는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인 보들레르의 시를 발췌하여 쓴 곡인데, 이 시는 「악의 꽃」 시집 중 「우울과 이상」 편에 수록된 시로써, 본래의 시는 3절이지만 뒤파르크는 1절과 3절만을 작곡한다. 이 시에서는 자신이 꿈속에서 그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그 나라는 네덜란드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네덜란드는 시인의 몽상에 있어 출발점을 이루고 있을 뿐 그가 환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 밖의 환상의 나라이다. 이 곡은 피아노 반주부에서의 화성적인 색채 변화가 특이할 점인데, ii 화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Fr. 6(증 6화음)을 사용하였으며, 이런 증 6화음의 사용으로 신비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음형(9잇단음표에 의한 아르페지오)이 나타나고 화음을 구성하는 음 중에 비화성음이 섞여져 있는 첨가화음(added chord)를 주로 사용하여 색채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성악 선율은 준낭송조의 멜로디 작법이 특징적인데, 그것은 이상의 그곳을 향한 꿈같은 노래의 황홀한 특질을 강화한다.

제 3곡 Extase(황홀)은 라오르의 여섯 행의 시에 부쳐진 곡으로 일관된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점차적인 강도의 발전으로 곡의 흐름을 주도한다. 전체적으로 몽롱하고 꿈꾸는 듯한 성악 선율은 여섯 행의 가사를 여유롭게 노래한다. 피아노 반주부에서는 음역의 이동과 리듬의 분할, 또한 성악선율을 그대로 재현하는 움직임 볼 수 있고 아치형의 진행도 보여 진다. 또한 반

음계의 잦은 사용과 피아노 외성부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율의 프레이즈는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성악 선율은 전체적으로 고요하게 연주되는데, 반음과 온음의 미묘한 진행이 사랑의 황홀경을 그려주고 있으며 최고음 A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mort*(죽음)의 단어에서, 오히려 *dim.*로 아주 여리게 연주함으로써 사랑의 절정에 도달 했을 때의 느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 4곡 *Le Manoir de Rosemonde*(로즈몽드의 정원)은 프랑스 학자이자 소설가인 보니에르의 시를 소재로 쓰여진 곡으로 뒤파르크의 가곡들 가운데 가장 강렬하고 극적인 곡이다. 자신의 힘든 인생을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찾아 해매는 시인을 그려내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곡은 피아노 반주부 전체적으로 동기가 되는 리듬이 매우 특징적인데, 불임줄을 이용한 당김음(*syncopation*)의 사용이 그러하다. 또한 스타카토와 불점의 상행되는 왼손부의 리듬은 앞으로 나가는 듯한, 쫓고 있는 느낌을 표현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리듬의 사용으로 곡 전체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으며 극적인 표현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음악적인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 성악 선율은 강하게 낭송조이며 외치고 소리치는 듯한 고음의 사용과 완전 8도 하행되는 도약 진행이 보여지며 포레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여지는 Tritone(3전음)이 특징적이다.

이상 뒤파르크의 특징적인 성격을 가진 4곡을 연구·분석하면서 그의 음악적 세계를 조명할 수 있었고, 특히 각 작품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정서를 연출해 내는 뒤파르크의 놀라운 재능은 주목되어야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시와 음악의 대등한 결합을 통해서 정서의 강화를 이룩했던 뒤파르크는 프랑스의 예술 가곡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자신만의 음악 어법으로서 특징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작곡가로 평가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서적 및 번역서

- 김봉구. 1977. **보들레르**.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문덕수. 1975. **세계문예대사전(上)**. 서울 : 성문각.
- 세광음악 출판사 편집부. 1894.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 출판사.
- 송면. 1981. **개관 프랑스 문학**. 서울 : 연대출판부.
- 오현명. 1977. **세계명곡해설전집 제6권(작곡가편)**. 서울 : 동오출판사.
- 이경숙. 2003. **예술가곡의 이해**. 서울 : 선우 미디어.
- 이규식. 1994. **프랑스 시인들 (비용에서 보들레르까지)**. 대전 : 한남대 출판부.
- 이병두, 1981. **세계명곡 해설대사전**.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 유태열, 1982. **성악인을 위한 프랑스어 디션**. 서울 : 수문당.
- 조규철. 1995. **프랑스시개론**. 서울 : 신아사.
- 홍세원. 1995. **A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 김미옥, 오희숙, 홍정수 공저. 1997. **두길 서양음악사 I**. 서울 : 나남출판사.
- 바이양, 알랭. 2000. **프랑스 시의 이해**. 서울 : 동문선.
- Baudelaire, Charles. 1995. **악의 꽃**. 정기수 역. 서울 : 정음문화사.
- Bernac, Pierre. 2001. **프랑스 예술가곡의 해석**. 심선화 역. 서울 : 청림 출판사.
- Grout, Donald Jay & Y. Palisca. 1988. *A History of Western Music* (上)  
서양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Grout, Donald Jay & Y. Palisca, 1988. *A History of Western Music* (下)  
서양음악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Lalu, Rene. 1982. **프랑스 시 개설**. 임채문 역. 서울 : 참구당.
- Kimball, Caroll. 2004. *Song*, 채은희 역. 서울 : 도서 출판 형설.

## 2. 외국서적

- Bernac, Pierre. 1976. *The Interpretation of French Song*,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 Cooper, Martin. 1951. *French Music - from the death of Berlioz to the death  
of Fauré* - New York·Toronto : Oxford University Press.
- Noske, Frits. 1970. *French song from Berlioz to Duparc*, New York :  
Dover publication, Inc.
- Sadie, Stanley. 1984.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5)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Ltd.
- Stevens, Denis. 1970. *A History of song*,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 3. 논문

- 박신화, 1986. **Henri Duparc의 가곡에 관한 연구 - 그의 가곡 5곡의 음악적  
특성과 연주법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송성아, 2008. **H. Duparc의 5개 Mélodie 연구를 통한 프랑스 가곡분석.**  
석사 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 윤정연, 2007. **프랑스<국립음악협회>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 이선옥, 1997. **Henri Duparc 歌曲에 關한 연구 - 관현악 반주가 붙은 8개의  
가곡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성신 여자 대학교.
- 채은희, 1992. **Henri Duparc의 성악작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최민화, 2002. **Henri Duparc의 가곡분석 - soupir, chanson triste, phidyle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 홍은주, 2004. **뒤빠르끄의 12가곡 반주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성신 여자 대학교.

#### 4. 웹 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Henri\\_Cazalis](http://en.wikipedia.org/wiki/Henri_Cazalis)

[http://photorental.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p=&masterno=12661&contentno=12661](http://photorental.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p=&masterno=12661&contentno=12661)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nobel/list/B12s4262a.html>

<http://www.seelotus.com/gojeon/oe-kuk/poetry/ga-eul-ui-no-rae.htm>

#### 5. 학술지

함태상. 1990. Duparc의 歌曲分析 : 伴奏의 音型別 類型을 中心으로. p.234

#### 6. 악보

Duparc, Henri. 12 songs for voice and piano (medium).

International Music Company.

Duparc, Henri. 13 songs voice and piano (high). 태림출판사.

## ABSTRACT

### A Study on the accompaniment of Henri Duparc's Songs

- Focused on the four songs 「Chanson Triste」

「L'Invitation au Voyage」 「Extase」 and

「Le Manoir de Rosemond」 -

**Kim, Kyung Hee**

Dep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of Music

Sungshin Women's University

Henri Duparc (1848-1933) was one of the French composers who played a seminal role in reviving the French music. As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Society National de Musique Moderne, he was a driving force behind the ascension of the French art songs. Along with Fauré and Debussy, Duparc was prominent in bringing what is known as “mélodie” to its halcyon days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and is still regarded as a towering figure among French composers.

Duparc's works present French's nuanced linguistic connotations with musical expressions, and rather than being bound by strict rules and format of composition, sought to be free-flowing. He not only amplified

the piano part's melodic significance of a piece to equal that of the vocal tune, but also arranged the accompaniment to orchestral music, which ultimately pushed the boundaries of the role of the piano. Although Duparc composed nearly 500 pieces in his lifetime, due to his tendency to be overly critical of himself, coupled with neurasthenia, he destroyed most of his works, thus leaving behind a mere sixteen art songs to his name. These sixteen pieces, although of unrelated content and style, generally exude dark and somber mood, perhaps symptomatic of Duparc's unstable mental state.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musical accompaniment of 「Chanson Triste」, 「L'Invitation au Voyage」, 「Extase」 and 「Le Manoir de Rosemond」, the four most-performed pieces among Duparc's sixteen surviving art songs. The aforementioned four pieces are based on the texts of transcendentalist poets Jean Lahor (1840-1909) and Robert de Bonnières (1850-1905), and symbolist poet Charles Baudelaire (1821-1869). Duparc seamlessly integrated various poets' works with musical compositions, rendering art songs which organically mesh each poet's tone with Duparc's particular sense of melodic sublimation.